



체크체크

| 국어 1-2 |

# 정답과 해설

공통 개념 기본서

빠른 정답 한눈에 보기	002
<b>1</b> 문학	009
<b>2</b> 읽기	022
<b>3</b> 문법	024
<b>4</b> 듣기·말하기	028
<b>5</b> 쓰기	030

# 1 | 문학

## 01 시

핵심 체크 | p.8~10

- 1 화자 2 X 3 ○ 4 반복 5 X 6 X 7 X 8 은유법 9 상징

### 개념 확인 문제 p.11

- 1 (1) 운율 (2) 내재율 (3) 심상 (4) 화자 2 ㉠, ㉡ 3 (1) ㉠ (2) ㉠ (3) ㉡ (4) ㉠
- 4 (1) -㉠, (2) -㉠, (3) -㉡, (4) -㉠, (5) -㉡

### (1) 딱지

#### 지문 내용 확인 p.12

- 1 ○ 2 직유법 3 X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3

- 01 ㉡ 02 ㉣ 03 ㉡ 04 ㉤ 05 새살
- 06 ㉣ 07 인간은 상처를 입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성장한다.

### (2) 동해 바다-후포에서

#### 지문 내용 확인 p.14

- 1 대조 2 동해 바다 3 ○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5

- 01 ㉤ 02 ㉣ 03 ㉤ 04 ㉠ 05 ㉢
- 06 ㉡ 파도 ㉢ 매 ㉣ 채찍질 07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존재

### (3) 별처럼 꽃처럼

#### 지문 내용 확인 p.16

- 1 ○ 2 보석 3 ○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7

- 01 ㉡ 02 ㉤ 03 ㉡ 04 ㉡ 05 ㉡
- 06 ㉡ 별 ㉢ 흐드러짐 07 반복을 통한 리듬감이 사라져 음악성이 느껴지지 않으며,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아 대상의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 (4) 봄은 고양이로다

#### 지문 내용 확인 p.18

- 1 ○ 2 봄의 불길 3 ○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9

- 01 ㉢ 02 ㉣ 03 ㉤ 04 ㉤ 05 ㉠
- 06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 의 눈에 07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봄날의 모습과 분위기

### (5) 고래를 위하여

#### 지문 내용 확인 p.20

- 1 고래 2 ○ 3 ○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1

- 01 ㉡ 02 ㉣ 03 ㉣ 04 ㉤ 05 ㉢
- 06 푸른 바다 07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소에 집중하게 한다.

### (6) 떨어져도 튼튼 공처럼

#### 지문 내용 확인 p.22

- 1 비유적 2 ○ 3 X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3

- 01 ㉠ 02 ㉣ 03 ㉣ 04 ㉡ 떠올라야지, 움직일, 튼튼
- 05 ㉠ 06 ㉤
- 07 시련과 고난을 견뎌라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닌 삶의 태도

### (7)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 지문 내용 확인 p.24

- 1 ○ 2 긍정적 3 ○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5

- 01 ㉤ 02 ㉢ 03 ㉣ 04 ㉡ 05 ㉡
- 06 ㉣ 07 '풀잎',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하여, '풀잎', '꽃잎' 외의 다른 존재들, 즉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8) 까마귀 싸우는 골에 / 까마귀 검다하고

#### 지문 내용 확인 p.26

- 1 대조 2 X 3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7

- 01 ②    02 ④    03 ②    04 ②    05 ④
- 06 청강에, 곁 희고    07 새 왕조에 가담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02 소설

핵심 체크 | p.28~31

- 1 상상    2 인물, 사건, 배경    3 ○    4 발단    5 ○    6 ○    7 ○
- 8 서사    9 허구    10 콩트    11 X

개념 확인 문제

p.31

- 1 ㉠-위기 ㉡-전개 ㉢-절정 ㉣-발단 ㉤-결말, ㉥-㉡-㉢-㉣-㉤
- 2 (1) ㉠ ㉡ ㉢ ㉣ ㉤    3 ㉠ 직접 제시 ㉡ 간접 제시    4 ㉠-내적 갈등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과 사회의 갈등

(1) 동백꽃

잠깐! 소설 미리보기

p.32

닭싸움    감자 세 개    고추장    닭싸움    동백꽃

차근차근 내용 체크

p.33~36

- 1 ②    2 ②    3 ④    4 ②    5 ①    6 ⑤    7 ③    8 ④    9 ⑤    10 ④
- 11 ③

작품 한눈에 보기

p.37

주인공    감자    동백꽃    소작민

차곡차곡 실력 체크

p.38~39

- 01 ②    02 ①    03 ⑤    04 ②    05 감자
- 06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고 자신은 소작농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07 ④
- 08 ④    09 ⑤    10 다음부터는 나의 호의를 거절하지 말아라.

(2) 공작나방

잠깐! 소설 미리보기

p.40

나비 수집    공작나방    공작나방    경멸    나비

차근차근 내용 체크

p.41~44

- 1 ②    2 ②    3 ③    4 ⑤    5 ⑤    6 ②    7 ⑤    8 ③    9 ③    10 ⑤
- 11 ④    12 ③

작품 한눈에 보기

p.45

액자 형식    공작나방    양심

차곡차곡 실력 체크

p.46~47

- 01 ④    02 ①    03 ②    04 (가)에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만, (나)~(마)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05 ④
- 06 ④    07 ①    08 아름답고 찬란한 나방을 내 손으로 망가뜨렸다는 사실    09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 자신은 나비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 보리 방구 조수택

잠깐! 소설 미리보기

p.48

석간신문    깎두기    신문    전학    수택이

차근차근 내용 체크

p.49~52

- 1 ④    2 ④    3 ④    4 ④    5 ③    6 ⑤    7 ③    8 ①    9 ①    10 ②
- 11 ①    12 ③

작품 한눈에 보기

p.53

짜    깎두기    소문    난로    어른

차곡차곡 실력 체크

p.54~55

- 01 ⑤    02 ③    03 ⑤    04 수택이는 아이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혼자 앉으려 한다.    05 ①    06 ⑤
- 07 ⑤    08 ⑤    09 '나'는 수택이에게 미안해하고, 수택이가 잘 지내기를 바라고 있다.

(4) 빨간 호리병박

잠깐! 소설 미리보기

p.56

해엄    물놀이    호리병박    외할머니

차근차근 내용 체크

p.57~60

- 1 ④    2 ③    3 ④    4 ②    5 ②    6 ①    7 ②    8 ⑤    9 ②
- 10 성장

작품 한눈에 보기

p.61

성장    사랑    물놀이    호리병박    외할머니  
관심    마름 열매    완

차곡차곡 실력 체크 p.62~63

- 01 ③      02 ②      03 ②      04 ③      05 '물'은 '뉴뉴'와 '완' 사이를 가까워지게 해준다.      06 ②      07 ④  
 08 ②      09 '뉴뉴'가 이전보다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 '뉴뉴'가 '완'과의 추억을 잊으려 함을 알 수 있다.

(5) 연

잠깐! 소설 미리보기 p.64

연 상급 학교 연날리기 불안한 연 체념 아들

차근차근 내용 체크 p.65~68

- 1 ⑤    2 ②    3 ③    4 ③    5 ②    6 ①    7 ④    8 연이 너무 높기 때문이고, 전에 없이 바람이 드세기 때문이다.    9 ⑤    10 ⑤    11 ②    12 ㉠ 연실, ㉡ 연    13 ⑤    14 ①    15 ④    16 ④

작품 한눈에 보기 p.69

연      작은 새      연실      안도감

차곡차곡 실력 체크 p.70~71

- 01 ⑤      02 ②      03 ⑤      04 ②      05 ㉠ 연, ㉡ 먼 하늘 여행을 꿈꾼다. ㉢ 빗살, ㉣ 곧게 하늘로 뻗어 있다.      06 ④  
 07 아들이 마을을 떠났다.

(6) 촌놈과 떡장수

잠깐! 소설 미리보기 p.72

촌놈 모욕 떡장수 떡 사과

차근차근 내용 체크 p.73~76

- 1 ⑤    2 ④    3 ④    4 ④    5 ③    6 ③    7 ②    8 ③    9 내가 장수에 떡장수라고 불렀다.    10 ③    11 ③    12 ③    13 ③    14 인절미

작품 한눈에 보기 p.77

촌놈      떡장수      성장      친근감

차곡차곡 실력 체크 p.78~79

- 01 ⑤      02 ④      03 ①      04 ③      05 ⑤  
 06 ①      07 ⑤      08 '나'가 광식이처럼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03 희곡, 시나리오

핵심 체크 | p.80~82 |

- 1 연극    2 X    3 대사, 동작, 무대    4 영화    5 C.U.    6 X    7 〇  
 8 갈등    9 종합 예술    10 〇

개념 확인 문제 p.82

- 1 ㉠ 무대 지시문 ㉡ 대사 ㉢ 동작 지시문    2 ㉠ 발단 ㉡ 전개 ㉢ 절정 ㉣ 하강 ㉤ 대단원    3 S#(장면 번호)    4 (1) F.I. (2) O.L. (3) C.U. (4) Ins.    5 ㉠, ㉡

잠깐! 시나리오 미리보기 p.83

열정 파업 빌레

(1) 빌리 엘리어트

차근차근 내용 체크 p.84~86

- 1 ⑤    2 ①, ②    3 ①    4 다시 차에 오른다.    5 ①    6 ④    7 (1) 직유법 (2) 우아한 모습으로 내려가고    8 ⑤    9 ③    10 ⑤    11 ⑤    12 ⑤

작품 한눈에 보기 p.87

대사      권투      탄광      파업

차곡차곡 실력 체크 p.88~89

- 01 ②      02 ④      03 ④      04 ④      05 ⑤  
 06 ③      07 ②      08 직유법, 공주처럼 내려가고

(2) 슴슴한 그대

잠깐! 드라마 대본 미리보기 p.90

치매 요리 평양온반

차근차근 내용 체크 p.91~93

- 1 ②    2 ④    3 ③    4 ⑤    5 장면 번호(scene number), 시나리오에서 각 장면의 차례를 나타낸다.    6 ③    7 ①    8 ④    9 ①    10 ③    11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이다.

작품 한눈에 보기 p.94

실향민      치매      온반

차곡차곡 실력 체크

p.95~96

- 01 ①    02 ⑤    03 ②    04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성태를 포기하게 하려고 한다.    05 ②    06 ③    07 ④
- 08 상태-음식 솜씨를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 / 할머니-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는 계기가 된다.

04 수필

핵심 체크 | p.97~98

- 1 X    2 중수필    3 개성    4 ○    5 성찰, 교훈

개념 확인 문제

p.99

- 1 ④    2 ㉠, ㉡    3 ㉠, ㉢, ㉤    4 (1) 경수필 (2) 기행문 (3) 칼럼 (4) 수기

(1) 엄마의 눈물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00~101

- 1 ②    2 ④    3 ⑤    4 ③    5 ④    6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한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사랑과 응원을 보내기 위해

작품 한눈에 보기

p.102

사랑	일기장	걱정	당당하게	등곳길
전사	어머니	경험	감사	응원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03

- 01 ①    02 ④    03 ⑤    04 ⑤
- 05 필사적인 투쟁, 등고 과정이 몹시 고되고 힘들었음을 의미한다.

(2) 네모난 수박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04~105

- 1 ①    2 ④    3 아크릴 상자    4 ①    5 오늘날 우리의 삶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6 ⑤

작품 한눈에 보기

p.106

현대	인위적	자연적	맛	향
의인화	외형	비판적	회복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07

- 01 ②    02 ④    03 ③    04 ⑤    05 의인법을 사용해 인위적으로 외형을 변화시키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2 읽기

01 예측하며 읽기

핵심 체크 | p.110~111

- 1 배경지식    2 글의 정보    3 능동적 읽기    4 제목    5 의도  
6 깊이 있게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10~111

- 1 ⑤    2 ①    3 ⑤    4 ③

군사들에게 종이 옷을 보낸 인조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12~114

- 1 ②    2 ①    3 옷감 사이에 종이를 넣는 이유    4 ③    5 ②    6 ④  
7 ②    8 따뜻한, 지혜

핵심 포인트

p.113~114

- 01 제목, 구조, 방한용    02 영향, 가치, 방한  
03 지혜, 의도

내용 한눈에 보기

p.115

이유	가치	지혜	정보	배경지식
사회적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16

- 01 ⑤    02 ④    03 ②    04 ⑤
- 05 윤미는 글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측했고, 준희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해 이어질 내용을 예측했다.

02 요약하며 읽기

핵심 체크 | p.117

- 1 요약    2 삭제    3 논설문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17

- 1 ⑤    2 ①

독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18~119

- 1 ④    2 ④    3 ③    4 독도의 생태계    5 ⑤

핵심 포인트

p.119

- 02 가치, 선택, 선택

**내용** 한눈에 보기

p.120

소개	가치	선택	생태계	일반화
삭제	재구성	전체	목적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21

01 ④      02 ④      03 ③      04 ①

05 독도에서는 다양한 새를 찾아볼 수 있다. - 일반화

# 3 | 문법

## 01 언어의 본질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24~126

1 X   2 ○   3 자의성   4 필연적이지 않다   5 사회적   6 언어의 사회성  
 7 X   8 시간   9 ③   10 ①   11 X   12 X   13 자의성  
 14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창조성

**잠깐!**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27

1 언어의 본질

- 1 (1) • 닉이 '과갈라'라는 새로운 말을 만든 것은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이 있다.
- 닉이 '음악'을 '과갈라'라고 부른 것은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다.
  - 닉이 '과갈라.'라고 말할 때,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이 알아듣지 못한 것은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
- (2) • '과갈라'라는 말소리가 나타내는 의미를 닉과 닉의 가족은 알고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므로 '과갈라'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 '과갈라'라는 말소리가 나타내는 의미를 닉과 닉의 가족만 알아들을 뿐 다른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라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과갈라'는 언어라고 할 수 없다.
- 2 (가) '열매'의 옛말은 '여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은 대상을 부르는 말이 달라진 것이다. 이를 통해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고마워!'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가 나라마다 다른 것을 통해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가 우연히 맺어진 것이라는 언어의 자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남학생은 '사람', '나무', '집'이라는 세 단어를 이용하여 열 가지 이상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이 세 단어를 포함한 문장을 무수히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인간은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표현을 무한히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언어의 창조성을 확인할 수 있다.
- (라)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을 '눈'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다.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눈'을 '코'로 바꾸어 부르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언어의 사회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27

1 ⑤   2 ④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28

01 의사소통   02 언어, 문화   03 의미, 말소리   04 필연적  
 05 (1)㉠ (2)㉢ (3)㉡ (4)㉣   06 언어의 창조성   07 다른 사람  
 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08 언어의 역사성   09 자의성  
 10 어사   11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29~130

01 ①, ③   02 ④   03 ①   04 ④   05 ④  
 06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07 언어의 창조성, 인간은 한정된 단어를 가지고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문장을 무한히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08 ②   09 ③  
 10 ⑤   11 ③   12 ①

## 02 품사의 종류와 특징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31~133

1 단어, 품사   2 기능, 의미   3 겹다, 밟다, 하얗다, 깨뜨리다 / 집, 그것, 어머니, 하늘   4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준다.   5 X   6 대명사   7 • 명사: 그릇, 자유 • 대명사: 이곳, 우리 • 수사: 하나, 넷째 • 동사: 던지다, 묻다 • 형용사: 투명하다 (형용사)   8 X   9 3   10 감탄사   11 옛, 너무, 어떤, 주룩주룩

**잠깐!**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34

1 품사의 뜻과 분류 기준

① 명사-㉠ ② 대명사-㉢ ③ 수사-㉣ ④ 동사-㉡ ⑤ 형용사-㉤  
 ⑥ 관형사-㉥ ⑦ 부사-㉦ ⑧ 조사-㉧ ⑨ 감탄사-㉨

2 품사의 종류와 특징

- ① • 흰둥이가 /가/ 도/ 만 밥 을 /은 먹었니  
 • 흰둥이가 /가/ 도/ 만 밥 을 /은 먹었어.  
 →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준다.
- ② • 아/아이고머니나! 놀랐잖아!  
 • 어머/으악! 깜짝이야.  
 → 놀랐을 때, 누군가를 부르거나 누군가에게 대답할 때 사용한다.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34

1 ③   2 ④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35

- 01 형태, 기능, 의미, 품사    02 (1) ㉠ (2) ㉡ (3) ㉢ (4) ㉣ (5) ㉤    03 명사 - 친구, 세종대왕 / 대명사 - 이것, 너희 / 수사 - 둘, 첫째 / 동사 - 먹다, 닦다 / 형용사 - 새롭다, 곧다, 흐리다 / 관형사 - 무슨, 옛 / 부사 - 꽤, 아주 / 조사 - 은/는, 까지 / 감탄사 - 그럼, 어머, 이보게    04 와, 가, 를  
 05 순서, 수사    06 조사, 뜻    07 생생, 일찍, 전혀    08 움직임, 성질  
 09 ㉠ 그 사람은 나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 종이 울리자, 모든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나왔다.    10 향기롭다, 쓸쓸하다, 깨끗하다    11 나, 소원, 첫째, 통일, 둘째, 셋째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36~137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외쳤다'는 동사, '깨끗하다'는 형용사로 둘 다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한다.    09 ㉣    10 ㉢  
 11 ㉡    12 ㉤    13 ㉡    14 안타까운 → 안타깝다, 컷다 → 크다, 가는 → 가늘다    15 ㉣

**03 상황에 맞는 어휘와 표현**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38~140

- 1 외래어    2 X    3 하늘, 나무, 반짝이다    4 느낌    5 X    6 은어    7 ㉡  
 8 속    9 동음이의어    10 꽃

**잠깐!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41

- 1 어휘의 체계와 양상  
 1 (1) 하늘, 모두 / 매장, 기념품 / 레스토랑, 홈페이지  
 (2) ㉠ 행사 ㉡ 드립니다 ㉢ 길 도우미/길 안내기  
 2 시청자들에게 표준어로 말한 이유: 전국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임으로 모든 시청자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가자에게 지역 방언으로 말한 이유: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참가자가 친근감을 느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41

- 1 ㉤    2 ㉤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42

- 01 고유어, 한자, 외래어    02 고유어    03 ㉠ 수리하다 ㉡ 수선하다 ㉢ 치료하다    04 고유어 - 누렇다, 구름, 꽃 / 한자어 - 체육관, 연필, 문화 / 외래어 - 핫도그, 아이스크림, 샤프    05 표준어, 유대감/친근감  
 06 사회 방언    07 나이    08 전문어, 비밀, 은어    09 (1) ㉠ (2) ㉡ (3) ㉣ (4) ㉤ (5) ㉢ (6) ㉣  
 10 (1) 유의어 (2) 반의어 (3) 동음이의어  
 11 (1) 가늘어진다 (2) 빠르다 (3) 감상 (4) 다음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43~144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    13 ㉢, ㉤    14 ㉢  
 15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으로, 그 의미를 모르는 상대와 대화할 때에는 상대가 아는 말로 표현해야 한다. / 손자가 청소년들이 쓰는 줄임말을 사용해 할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안 된 것이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

# 4 | 듣기·말하기

## 01 면담하기

핵심 체크 | p.148

- 1 목적    2 정보    3 X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48

- 1 ㉣    2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49~150

- 1 ㉤    2 진로 발표회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구를 소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이다.    3 ㉤    4 ㉣    5 ㉢  
 6 ㉣

**내용 한눈에 보기** p.151

정보	목적	상황	목적	순서
구체적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52~153

- 01 ㉤    02 ㉢    03 ㉤    04 상대방이 좀 더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이다.    05 ㉠, ㉤    06 ㉢  
 07 ㉤    08 ㉡, 다현이가 질문하기 전에 ㉡에 대한 대답을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 02 배려하며 말하기

핵심 체크 | p.154

- 1 정신적    2 X    3 X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54

- 1 ㉢    2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55~156

1 ② 2 ⑤ 3 ④ 4 ⑤ 5 약속 시각에 늦은 친구가 사과를 하며 늦은 이유를 설명했을 것이다.

**내용** 한눈에 보기 p.156

차별 정신적 부정적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57

01 ② 02 ② 03 ③ 04 정말 미안해. 서두르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와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 다음부터는 늦지 않을게.

# 5 | 쓰기

## 01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 쓰기

1 ○ 2 제목 3 공유 **핵심 체크** | p.160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60

1 ㉠-㉡-㉢-㉣-㉤ 2 ③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61~162

1 ② 2 ③ 3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어려움. 4 ① 5 ⑤  
6 ③ 7 ⑤

**내용** 한눈에 보기 p.163

내용 제목 공유 성찰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64

01 ⑤ 02 ②, ③ 03 ④ 04 마음의 성장과 성숙

## 02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

1 통일성 2 목적, 주제, 예상 독자 3 문장 **핵심 체크** | p.165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65

1 ④ 2 ⑤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66~167

1 ③ 2 ③ 3 ④ 4 내용이나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5 ⑤  
6 ④ 7 ④ 8 물론, 된다

**내용** 한눈에 보기 p.168

출처 개요 예상 독자 통일성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69

01 ④ 02 ③ 03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 03 매체의 특성에 맞게 표현하기

1 기획 2 스토리보드 3 X **핵심 체크** | p.170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70

1 ⑤ 2 ④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71~173

1 ③ 2 ⑤ 3 ③ 4 ⑤ 5 ⑤ 6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 7 ①, ⑤ 8 ④ 9 ④

**내용** 한눈에 보기 p.174

기획안 효과음 실시간 댓글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75~176

01 ② 02 ③ 03 ③ 04 경쾌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05 ③ 06 ④ 07 ④  
08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았다. / 근거 없는 비난으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 1 | 문학

## 01 시

핵심 체크 | p.8~10

1 화자 2 X 3 ○ 4 반복 5 X 6 X 7 X 8 은유법  
9 상징

### 개념 확인 문제

p.11

1 (1) 운율 (2) 내재율 (3) 심상 (4) 화자 2 ㉠, ㉡ 3 (1) ㉠ (2) ㉠ (3) ㉡ (4) ㉠  
4 (1) - ㉠, (2) - ㉠, (3) - ㉡, (4) - ㉡, (5) - ㉡

2 ㉠ ‘고양이’, ‘봄’의 같은 단어가 각 연의 같은 위치에서 반복됨. ㉡ 각 연에 ‘~에, ~도다’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 (1) 딱지

#### 지문 내용 확인

p.12

1 ○ 2 직유법 3 X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3

01 ㉡ 02 ㉣ 03 ㉡ 04 ㉤ 05 새살  
06 ㉣ 07 인간은 상처를 입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성장한다.

- 01 이 글은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나타낸 시이다. 시는 행과 연으로 구성된다.
- 02 어린 시절 ‘나’는 딱지를 손톱으로 떼어 내려고 했지만, 딱지를 그대로 두어야 낫는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딱지를 떼어 내지 않았고, 딱지가 떨어진 후 새살이 돋았다고 했으므로 무릎에 딱지를 떼어 낸 흉터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03 이 시는 ‘딱지, 아버지’ 등 같은 시어의 반복과 시행의 끝에서 ‘~(ㄴ)다’의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4 ‘딱지’는 몸에 생긴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으로서, 우리 마음에 생긴 상처가 치유되어 더욱 성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05 몸에 생긴 딱지가 저절로 떨어지고 생겨난 ‘새살’은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성장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06 ㉠에는 ‘~같은, ~처럼, ~듯이’ 등의 연결어를 사용하여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① 은유법 ②, ③ 의인법 ⑤ 설의법

07 화자는 마음에 딱지를 달고 다니면서 ㉠과 같은 아버지의 말 씬을 떠올린다. 이를 통해 화자는 딱지가 떨어지고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됨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 (2) 동해 바다-후포에서

#### 지문 내용 확인

p.14

1 대조 2 동해 바다 3 ○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5

01 ㉤ 02 ㉣ 03 ㉤ 04 ㉠ 05 ㉢  
06 ㉡ 파도 07 매 ㉢ 채찍질 07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존재

- 01 이 시의 화자는 ‘동해 바다’라는 자연물을 통해 타인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포용하는 삶의 자세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시에서 의성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 02 이 시는 같은 시어나 시구의 반복과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①은 같은 단어를, ②, ③, ⑤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④는 한 행을 네 마디로 끊어 읽는 일정한 음보의 반복이 나타난다.
- 03 이 시의 화자는 그동안 세상살이가 각박하다는 핑계로 자기 잘못에는 관대하면서 남의 잘못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던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다.
- 04 화자는 스스로를 돌에 빗대어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너그려웠던 옹졸한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 05 이 시에는 직유법과 점층법, 비교법 등이 사용되었다. ㉠ 직유법 ㉡ 은유법 ㉢ 직유법 ㉣ 점층법
- 06 ‘역센 파도’와 ‘매’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엄격하게 다스리기 위한 도구로, 그러한 행위를 ‘채찍질’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 07 이 시에서 ‘동해 바다’는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삶의 태도를 지닌 존재이다.

### (3) 별처럼 꽃처럼

지문 내용 확인

p.16

1 ○ 2 보석 3 ○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7

01 ② 02 ⑤ 03 ② 04 ② 05 ②

06 ㉔ 별 ⑥ 흐드러짐 07 반복을 통한 리듬감이 사라져 음악성이 느껴지지 않으며,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아 대상의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 01 이 시에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① ‘까르르’라는 의성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③ 5연에서 ‘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학생들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④ 4연에서 다양한 보석들을 나열하고 있다. ⑤ 시의 전반에서 은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 02 비유적 표현은 장면이나 대상을 생생하고 참신하게 표현함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흥미를 주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러나 비유적 표현은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으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03 이 시는 학생들의 맑은 눈과 환한 웃음, 싱그러운 불과 빛나는 이마를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노래함으로써 밝고 활기차며 희망찬 분위기가 느껴진다. ‘애상적’은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이 시의 분위기와는 관련이 없다.
- 04 ㉔에는 원관념을 ‘~같이’, ‘~처럼’과 같은 연결어 없이 보조 관념에 은근히 빗대어 표현하는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②에서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 05 ㉔에는 시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① 촉각적 심상 ③ 미각적 심상 ④ 청각적 심상 ⑤ 후각적 심상
- 06 학생들의 맑고 빛나는 눈을 반짝이는 별에, 학생들의 환한 웃음을 흐드러진 장미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 07 <보기>는 1연을 일반적인 문장으로 풀어 쓴 것으로, 시를 줄 글로 바꾸면서 말의 가락이 사라져 운율을 느낄 수 없다. 또한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으면서 비유적인 표현이 주는 생생하고 감각적인 느낌도 사라졌다.

### (4) 봄은 고양이로다

지문 내용 확인

p.18

1 ○ 2 봄의 불길 3 ○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9

01 ③ 02 ④ 03 ⑤ 04 ⑤ 05 ①

06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07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봄날의 모습과 분위기

- 01 이 시는 정적인 분위기가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봄의 정적인 이미지(1, 3연)와 동적인 이미지(2, 4연)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 02 이 시의 3연에서는 고요히 다문 고양이의 입술에서 봄의 줄음이라는 느낌을 떠올려 표현하고 있을 뿐 ‘고양이의 입술’을 ‘줄음’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아니다.
- 03 ㉔에서는 시각적 심상이 느껴지며, ‘손톱으로 툭 튀기면 짱하고 금이 갈 듯’에서는 청각적 심상이 느껴진다.
- 04 이 시에서는 봄날의 활동적인 생기를 날카롭게 짚 째은 고양이의 수염으로 표현하고 있다.
- 05 1연과 3연에서는 포근한 봄날의 나른함과 따뜻함, 2연과 4연에서는 활동적이고 생기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나 긴장된 분위기는 찾을 수 없다.
- 06 <보기>에서는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을 ‘~처럼, ~같이, ~듯이’와 같은 연결어를 사용하여 다른 대상(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 07 이 시는 ‘봄의 모습과 분위기’를 ‘고양이의 외양’에 빗대어 다양하고 감각적이며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 (5) 고래를 위하여

지문 내용 확인

p.20

1 고래 2 ○ 3 ○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1

01 ② 02 ④ 03 ④ 04 ⑤ 05 ③

06 푸른 바다 07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소에 집중하게 한다.

- 01 이 시의 1~3연에서는 푸른 바다와 고래, 별에 대해 이야기 하며 의도를 드러내고 있을 뿐 시간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02** ④의 ‘달팽이’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고 그 지향점이 ‘바다’이다. 이 시의 고래도 꿈을 추구하는 존재로, 꿈과 이상을 상징하는 ‘별’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① 서로 대조되는 관계 ② ‘바람’이 ‘가리봉둥’을 떠올리는 매개체 ③ ‘연필깎이’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 ⑤ ‘일기’는 ‘일’을 기억하기 위한 기록 수단
- 03** 이 시는 동일한 시어의 반복과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는 4음보가 나타날 뿐 시어나 문장 구조의 반복은 나타나지 않았다.
- 04** 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 표현이다. [A]는 <보기>의 내용을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05** 이 시의 시인은 청년이 마음속 바다에 고래 한 마리를 키우기를 바라고 있다. 즉, 푸른 바다에 고래를 키우듯 청년이 삶에서 꿈을 키우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 06** 이 시에서 고래가 있는 곳은 ‘푸른 바다’로, 시인은 마음속에 푸른 바다가 있다고 하면서 푸른 바다는 고래를 위해 푸른색을 띤다고 하고 있다.
- 07** ‘-고래가 없으면 -바다가 아니지’, ‘키우지 않으면/청년이 아니지’, ‘사랑을 모르지’ 등에서 부정형 진술을 사용함으로써 푸른 바다와 청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 (6)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지문 내용 확인

p.22

1 비유적 2 ○ 3 X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3

01 ① 02 ④ 03 ④ 04 @ 떠올라야지, 움직일, 튀는 ⑥ 하강 이미지 ⑦ 극복, 의지 05 ① 06 ⑤

07 시련과 고난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닌 삶의 태도

- 01** 이 시의 화자 ‘나’는 ‘살아 봐야지’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즉 청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말투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 02** 한 행을 같은 호흡으로 반복해서 끊어 읽는 것을 음보율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시에서는 3음보나 4음보와 같은 음보율을 느낄 수 없다.

- 03** 3번 문항에서 직유법의 사례로 제시한 ‘~처럼’은 원관념을 보조 관념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에게 ‘나’와 같은 상태인지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직유법의 사례라고 볼 수 없다.
- 04** ‘떨어져도, 쓰러지는’은 하강의 이미지를, ‘떠올라야지, 움직일, 튀는’은 상승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떨어져도, 쓰러지는’이 시련과 고난의 상태를 의미한다면, 상승의 이미지는 ‘극복, 의지’등과 같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 05** <보기>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일상적 표현, [A]는 <보기>의 내용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보기>보다는 [A]가 생생한 느낌을 준다.
- 06** 이 시의 화자는 ①의 모습에서 삶의 올바른 태도를 깨닫고 있다. ⑤에서도 ‘추위’, ‘눈서리’를 모르는 ‘솔’에게서 삶의 올바른 태도를 발견하며 교훈을 얻고 있다.
- 07** 이 시의 화자는 ‘공’의 둥근 모습을 ‘최선의 꼴’로 평가하고 있다. 공의 모습은 시련과 고난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지닌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 (7)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지문 내용 확인

p.24

1 ○ 2 긍정적 3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5

01 ⑤ 02 ③ 03 ④ 04 ② 05 ②

06 ④ 07 ‘풀잎’,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하여, ‘풀잎’, ‘꽃잎’ 외의 다른 존재들, 즉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01** ‘놀’은 ‘노을’의 준말로 표준어이다. 시적 허용은 문법상 틀린 표현이라도 시적인 효과를 위해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놀’은 시적 허용이 사용된 표현이 아니다.
- 02** 이 시의 화자에게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들어 주고 있는 것이지 화자가 상처 많은 풀잎들에게 손을 흔들어 준 것은 아니다.
- 03** ①은 화자가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회상의 장소이다. <보기>의 장소 중에서 영희와 어색해진 것을 떠올리며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게 하는 공간은 ‘놀이터’이다. ‘건널목’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그 매개체는 ‘놀이터’인 것이다.

- 04 ㉠은 풀잎을 의인화한 표현으로 감각적이고 생생한 느낌을 준다.
- 05 이 시의 화자는 상처에 대해서 색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상처(㉠)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향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06 ‘풀잎’, ‘꽃잎’은 작고 연약하고 아름다우면서 상처를 지닌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처에 맞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 07 ‘에도’라는 조사를 통해 ‘풀잎’, ‘꽃잎’ 외의 다른 존재들을 떠올릴 수 있다.

(8) 까마귀 싸우는 꼴에 / 까마귀 검다하고

지문 내용 확인 p.26

1 대조 2 X 3 O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7

- 01 ㉠      02 ㉣      03 ㉡      04 ㉡      05 ㉣
- 06 청강에, 걸 희고      07 새 왕조에 가담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 01 (가)와 (나) 모두 고려 말 조선 초에 지어진 시조로, 3·4조의 음수율과 4음보의 율격을 지녔으며, 종장의 첫 음보는 3글자로 고정되어 있다.
- 02 (가)의 ‘백로’는 간신을 상징하는 ‘까마귀’와 대비되는 존재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충신을 의미하고, (나)의 ‘백로’는 고려에 대한 충신을 자처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 03 (가)의 화자는 아들에게 모함이나 시기의 대상이 되어 화를 입을지도 모르니 의롭지 못한 세력들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먹을 가까이하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뜻의 근묵자흑(近墨者黑)과 어울린다. ① 괄목상대(刮目相對) : 눈을 비비고 상대를 다시 본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학식이나 업적이 크게 진보한 것을 이룸. ③ 새옹지마(塞翁之馬) : 세상 일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의미. ④ 곡학아세(曲學阿世) : 정도를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을 의미. ⑤ 망운지정(望雲之情) : 멀리 떠난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함.
- 04 (가)에서 비판의 대상은 싸우기 좋아하는 간신 무리인 ‘까마귀’이고, (나)에서 비판의 대상은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켰다고 자처하는 신하들로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백로’이다.

- 05 설의적 표현은 당연한 대답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나타냄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나)에서 화자는 ‘속까지 검을쏘냐(속까지 검겠느냐?)’라고 표현함으로써 속은 검지 않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06 시조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3글자여야 한다.
- 07 (나)의 지은이는 고려의 신하였지만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우고 높은 벼슬까지 지낸 인물이다. 따라서 새 왕조에 가담한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나)를 써서 ‘백로’, 즉 자신과 뜻이 다른 고려의 유신들을 비판했을 것이다.

02 소설

핵심 체크 | p.28~31 |

- 1 상상 2 인물, 사건, 배경 3 O 4 발단 5 O 6 O 7 O
- 8 서사 9 허구 10 콩트 11 X

개념 확인 문제 p.31

- 1 ㉠-위기 ㉡-전개 ㉢-절정 ㉣-발단 ㉤-결말, ㉠-㉡-㉢-㉣-㉤
- 2 (1) ㉠ (2) ㉢ (3) ㉣ (4) ㉡    3 ㉠ 직접 제시 ㉡ 간접 제시    4 ㉠-내적 갈등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과 사회의 갈등

(1) 동백꽃

잠깐! 소설 미리보기 p.32

닭싸움 감자 세 개 고추장 닭싸움 동백꽃

차근차근 내용 체크 p.33~36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한다.
- 2 (나)에서 ‘나’는 지계막대기로 점순네 닭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고 하였다.
- 3 ‘감자’는 ‘나’에 대한 점순이의 호감을 드러내고, 이를 거절한 ‘나’를 점순이가 괴롭히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이다.

- 4 적극적으로 활발한 성격의 점순이는 '나'에 대한 자신의 호의를 거절당하자 자존심이 상해 '나'의 닭을 괴롭힌다. 눈치가 없고 어수룩한 것은 '나'에 대한 설명이다.
- 5 '나'가 감자를 거절한 사건으로 자존심이 상한 점순이는 '나'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의 수탉을 괴롭힌다.
- 6 이 글은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는 '나'의 어수룩한 행동과 이와 대조되는 점순이의 적극적인 성격, 비속어, 사투리, 구어체의 사용, 토속적인 소재 등으로 인해 웃음을 유발한다.
- 7 '나'는 점순네 닭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고 싸움을 붙이지만 결국 지고 만다.
- 8 '나'는 점순이와 그의 닭에 대해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점순네 수탉을 죽였지만, 정말 수탉이 죽자 무안함과 당황스러움을 느끼며 이어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길까 봐 두려워한다.
- 9 '나'가 도망을 간 것은 점순이 어머니의 부름에 놀라서 얼떨결에 한 행동이지 신분 차이 때문은 아니다.
- 10 이 글에서 '동백꽃'은 작품의 서정적, 낭만적 분위기를 높이고 '순박한 시골 남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부각한다.
- 11 이 글은 나흘 전 점순이가 준 감자를 '나'가 거절해서 사건이 시작된다.

**작품 한눈에 보기**

p.37

주인공    감자    동백꽃    소작민

**차곡차곡 실력 체크**

p.38~39

- 01 ②    02 ①    03 ⑤    04 ②    05 감자  
 06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고 자신은 소작농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07 ④  
 08 ④    09 ⑤    10 다음부터는 나의 호의를 거절하지 말아라.
- 01 이 글은 현재-과거-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02 '나'가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한 것은 감자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작민의 아들인 '나'에게 마름의 딸인 점순이가 생색을 낸다고 생각하여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 03 '나'는 순진하고 어리숙한 성격으로, 점순이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다. 또한 호의를 베푸는 점순이에게 무뚝뚝하게 대한다. '나'의 성미가 급하다는 것은 이 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 04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준 것은 '나'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서였지 '나'가 감자를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긴 것은 아니다.
- 05 점순이는 '나'에 대한 관심을 표하기 위해 감자를 내밀지만 '나'가 감자를 거절하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다.
- 06 '나'는 점순이와 '나'의 처지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점순네 닭을 차마 때릴 수 없었다.
- 07 (라)에서 점순이의 어머니는 점순이가 '나'와 있는 것을 모르고 점순이를 찾았다. 그러므로 점순이의 어머니가 '나'를 반대하는지는 알 수 없다.
- 08 '나'는 끝까지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다.
- 09 ㉔에는 점순이에 대한 '나'의 감정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이 감각적으로 드러나 있다.
- 10 점순이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이 다음부터는 닭을 죽이지 마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지금처럼 통명스럽게 대하지 말고 자신을 좋아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2) 공작나방**

**잠깐! 소설 미리보기**

p.40

나비 수집    공작나방    공작나방    경멸    나비

**차근차근 내용 체크**

p.41~44

- 1 ②    2 ②    3 ③    4 ⑤    5 ⑤    6 ②    7 ⑤    8 ③    9 ③    10 ⑤  
 11 ④    12 ③
- 1 이 글은 외부 이야기 속에 또다른 이야기인 내부 이야기가 존재하는 '액자식 구성'의 소설이다.
  - 2 ㉔의 '나'는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인 '나'를 가리키고, ㉓, ㉔, ㉕는 모두 내부 이야기의 서술자인 하인리히 모어를 가리킨다.
  - 3 아이들이 생긴 후 다시 나비 수집을 시작하게 된 사람은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인 '나'이다.
  - 4 나비의 날개를 풀로 이어 맞추는 것은 남이 잘하지 못하는 어려운 기술로, 예밀이 지니고 있었다.
  - 5 (라)에 의하면 예밀의 수집물은 그리 대단하지 않지만 그것을 깨끗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솜씨가 좋다고 하였다.



- 6 '나'는 에밀이 수집한 나비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흥분했다.
- 7 이 글에서 '나'는 흠친 나비를 갖다 놓으려다 공작나방이 망가진 것을 보고 자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하였다.
- 8 (사)~(아)는 갈등이 고조되고 위기감이 심화되는 '위기' 단계이다.
- 9 '나'는 공작나방을 갖고 싶어서 들고 나왔지만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된다는 양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띄까 두려워한다.
- 10 어머니는 '나'의 고백이 매우 놀랍고 슬픈 눈치였지만 곧바로 에밀에게 가서 용서를 빌라고 충고한다. 이는 잘못된 일이 있으면 즉시 자신이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11 (차)에서 에밀은 '나'의 고백을 듣고 화를 내지 않고 비웃으며 경멸한다. 이를 통해 봤을 때, 에밀은 냉정하고 배려심이 없는 성격이란 것을 알 수 있다.
- 12 (카)에서 양심을 지키지 못한 '나'는 나비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나비를 비벼서 가루를 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가 정신적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한눈에 보기

p.45

액자 형식 공작나방 양심

차곡차곡 실력 체크

p.46~47

- 01 ④    02 ①    03 ②    04 (가)에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만, (나)~(마)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05 ④
- 06 ④    07 ①    08 아름답고 찬란한 나방을 내 손으로 망가뜨렸다는 사실    09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 자신은 나비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01 이 글은 1인칭 관찰자인 '나'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외부 이야기 속에 하인리히 모어가 들려주는 내부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서술자는 다르지만 두 이야기 모두 주인공은 하인리히 모어이다.
- 02 하인리히 모어가 오랜만에 '나'를 찾아와 어린 시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아, 둘의 관계가 소홀해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03 (나)에서 소년 시절에 처음으로 노랑나비를 찾아냈던 때가 떠오른단든지, 지금도 아름다운 나비를 보면 어렸을 때의 열정이 떠오른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때의 열정'이란 나비를 잡는 즐거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04 이 소설은 외부 이야기에서는 '나'가 하인리히 모어를 관찰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나타나고, 내부 이야기에서는 주인공 하인리히 모어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나타난다.
- 05 '나'는 에밀을 찾아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에밀은 '나'를 용서해 주지 않고 경멸했다. '나'는 이를 통해 한번 저지른 일은 어떻게 해도 바로잡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수집한 나비들을 모두 가루로 만들었다.
- 06 '나'는 공작나방을 흠치다가 망가뜨린 일을 계기로 나비에 대한 욕망보다 양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는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친구에게 사실대로 고백을 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정직이라는 덕목을 배울 수 있다.
- 07 (라)를 보면 '에밀'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나'를 경멸하며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를 통해 '에밀'은 정이 없고 차가운 성격을 알 수 있다. 또한 (라)에서 에밀은 격분하거나 큰소리로 꾸짖지도 않는데 이를 통해 다혈질적인 성격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08 (나)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나'가 에밀의 나비를 망가뜨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9 '나'는 에밀의 경멸 어린 시선에 나비를 수집하는 기쁨이 사라졌고, 양심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비를 손끝으로 비벼서 못쓰게 가루로 만들었다.

(3) 보리 방구 조수택

잠깐! 소설 미리보기

p.48

석간신문 깎두기 신문 전학 수택이

차근차근 내용 체크

p.49~52

- 1 ④    2 ④    3 ④    4 ④    5 ③    6 ⑤    7 ③    8 ①    9 ①    10 ②
- 11 ①    12 ③

- 1 이 글의 시점은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 2 수택이는 아이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다.
- 3 이 글은 어른이 된 '나'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이다.
- 4 '나'는 착한 어린이 상을 탄 자신을 친구들이 좋지 않게 볼까 봐 짝을 바꿔 달라고 하지 않았다.

- 5 수택이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보리밥을 먹는 것이지 좋아해서 먹는 것은 아니다.
- 6 선생님은 늘 혼자 도시락을 먹는 수택이를 안타깝게 여겨 그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조치를 취한 것이다.
- 7 '나'는 수택이가 불쌍했기 때문에 깍두기를 나눠 주었다.
- 8 '나'와 수택이가 사귄다는 소문이 나게 되었다.
- 9 '나'는 수택이와 사귄다는 소문이 나자 이를 가라앉게 하려고 수택이에게 거리를 두며 차갑게 행동 한다.
- 10 수택이가 전학을 가게 된 이유는 가정형편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 아이들이 놀려서 이사를 갔는지는 알 수 없다.
- 11 '나'는 수택이의 신문을 난로에 던져 버린 것을 미안해하고 있다.
- 12 '나'는 수택이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수택이가 잘 지내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수택이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작품 한눈에 보기**

p.53

작 깍두기 소문 난로 어른

**차곡차곡 실력 체크**

p.54~55

- 01 ⑤      02 ③      03 ⑤      04 수택이는 아이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혼자 앉으려 한다.      05 ①      06 ⑤
  - 07 ⑤      08 ⑤      09 '나'는 수택이에게 미안해하고, 수택이가 잘 지내기를 바라고 있다.
- 
- 0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므로 1인칭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 02 '나'는 '착한 어린이' 상을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을 탔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보느라 짝을 바꿔달라고 하지 못한다.
  - 03 '나'는 수택이와 짝을 결정하기까지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내적 갈등을 겪는다. 이처럼 내적 갈등을 겪는 인물은 ⑤의 '춘향'이고, 나머지는 외적 갈등이다.
  - 04 앞의 내용을 보면 수택이는 짝이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면 선생님에게 가서 ①과 같은 말을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 05 어른이 된 '나'가 수택이를 떠올리게 되는 소재는 구겨진 신문이다.
  - 06 '나'는 수택이와의 소문을 가라앉히기 위해 신문을 난로에 던진다.

- 07 (다)는 절정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이다.
- 08 '나'는 신문을 보면 어린 시절 수택이에 대한 미안함이 떠오르는데 이를 과거 회상의 매개체라 한다. 유사한 것은 ⑤에 쓰인 신문으로 이 글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 09 시간이 많이 흐른 뒤 '나'는 수택이에게 자신이 신문을 구겨 넣었을 때의 장면이 기억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수택이에게 그날 일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4) 빨간 호리병박**

**잠깐! 소설 미리보기**

p.56

헤엄 물놀이 호리병박 외할머니

**차근차근 내용 체크**

p.57~60

1 ④    2 ③    3 ④    4 ②    5 ②    6 ①    7 ②    8 ⑤    9 ②  
10 성장

- 1 '뉴뉴'는 '완'에게 관심이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완'을 지켜 보고만 있다.
- 2 마름 열매는 '완'이 '뉴뉴'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서 건넨 것이므로 마름 열매는 인물과 인물을 가깝게 해준다.
- 3 '완'은 '뉴뉴'가 물에 들어오자 '뉴뉴'를 보호하기 위해 헤엄을 치지 않는다.
- 4 '완'은 친구가 없기 때문에 작은 섬에 있는 나무들을 친구로 삼아 놓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완'이 쓸쓸한 아이임을 알 수 있다.
- 5 '완'은 '뉴뉴'가 스스로 수영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호리병박을 빼앗은 것이지 다른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 6 '뉴뉴'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완'이 그 상황에서 자신을 외면했다고 생각해서 '뉴뉴'는 '완'을 원망하게 된다.
- 7 '완'은 ①에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뉴뉴'와 마을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게 돼서 억울하다 생각했을 것이다.
- 8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뉴뉴'는 '완'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된다.
- 9 '뉴뉴'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은 할머니의 옛 이야기를 듣고 '완'이 호리병박을 빼앗은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 10** '뉴뉴'가 호리병박을 풀어 주는 행위는 수영 실력이 향상되었거나 '완'과의 추억을 떠나보내고자 하는 것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뉴뉴'가 이전보다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작품 한눈에 보기**

p.61

성장	사랑	물놀이	호리병박	외할머니
관심	마름 열매	완		

**차곡차곡 실력 체크**

p.62~63

- 01** ③      **02** ②      **03** ②      **04** ③      **05** '물'은 '뉴뉴'와 '완' 사이를 가까워지게 해준다.      **06** ②      **07** ④  
**08** ②      **09** '뉴뉴'가 이전보다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 '뉴뉴'가 '완'과의 추억을 잊으려 함을 알 수 있다.

- 01** 이 작품은 소녀, 소년가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성장 소설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 02** ㉠에서는 '엄마'가 '뉴뉴'에게 질문을 한 이유는 '뉴뉴'가 왜 다급하게 '엄마'를 불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까지는 '엄마'가 '뉴뉴'를 싫어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 03** (나)는 인물과 인물이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다)는 두 인물이 물놀이를 하는 부분이므로 (나)에 비해 (다)에서는 두 인물 간 사이가 가까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04** '완'은 '뉴뉴'에 대한 호감을 담아서 '마름 열매'를 건네고 '뉴뉴'는 이것을 받는다. 이를 통해 '완'과 '뉴뉴'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05** '완'과 '뉴뉴'는 물놀이를 함으로써 서로의 낯섦과 거리감을 없앤다. 즉 '물'은 '완'과 '뉴뉴' 사이를 친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 06** '완'이 '뉴뉴'를 구하지 않은 이유는 '뉴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는 없다.
- 07** '뉴뉴'는 '완'이 자신을 진짜 죽이려 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에서 '뉴뉴'는 '완'을 진심으로 원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④처럼 '완'에 대한 관심이 남아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 08** ㉡에서 '완'은 무척이나 억울할 것이다. 왜냐하면 '완'은 '뉴뉴'에게 스스로 헤엄치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뉴뉴'의 호리병박을 빼앗은 것인데 그것이 뜻밖의 오해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 09** '호리병박'은 '뉴뉴'가 수영할 때 의지하던 물건이므로 '뉴뉴'가 호리병박을 풀어 주는 것은 '뉴뉴'가 수영할 때 호리병박이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호리병박은 '완'과 추억이 담긴 물건이므로 '호리병박'을 풀어 주는 건 '완'과의 추억을 정리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5) 연**

**잠깐! 소설 미리보기**

p.64

연    상급 학교    연날리기    불안한 연    체념    아들

**차근차근 내용 체크**

p.65~68

**1** ⑤    **2** ②    **3** ③    **4** ③    **5** ②    **6** ①    **7** ④    **8** 연이 너무 높고 떠 있고, 전에 없이 바람이 드세기 때문이다.    **9** ⑤    **10** ⑤    **11** ②    **12** ㉠ 연 실. ⑥ 연    **13** ⑤    **14** ①    **15** ④    **16** ④

- 1** (라)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지는 어머니의 딸이 아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모양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들이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볼 수는 없다.
- 2** '연'을 연결어를 활용하여 '작은 새'에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 3**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아들을 달래고 설득하기 위한 말이다.
- 4** 또래 아이들이 모두 읍내로 떠나고 난 뒤, 혼자 남아 하루 종일 연을 날리는 모습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 5** (사)에서 어머니는 '녀석의 마음이 고이 머물고 있는 연의 위로를 감사'해한다. 어머니는 아들이 연을 날리며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
- 6** '봄 하늘처럼 적막스럽고 외로운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이 글의 계절적 배경인 '봄'은 적막하고 외로운 분위기를 알 수 있다.
- 7** 평소와 달리 봄바람이 거센 날씨는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것 같은 불길함을 조성하는 배경이다.
- 8** 어머니는 드센 바람에 연실이 끊어질까 불안해하고 있다. 계

다가 오늘따라 연이 평소 아들이 날리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불안이 더해지고 있다.

- 9 이 소설의 서술자는 소설 밖에 위치하면서 인물의 행동뿐만 아니라 심리까지도 모두 전달하고 있다.
- 10 어머니가 연이 날아갈까 걱정을 한 것은 아들이 연처럼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11 (자)에서 불안해하던 어머니는 (차)에서 체념의 태도를 보인다. 아들이 떠난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모습이다.
- 12 '빛살처럼 ~ 연실'이라는 표현과 연이 날아가는 것을 '까만 새처럼 떨어져 가고 있는 ~'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13 어머니가 아들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미리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처럼 놀라는 빛이 없었'고 아들을 쫓아가려는 기색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미 아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14 조무래기는 연실을 감아 들이며 제풀에 먼저 변명을 하고 있다. 이와 관계 깊은 속담은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도둑이 제 발 저린다.'이다.
- 15 앞의 '흐느적흐느적'이라는 말에서 지친 듯한 기운 없는 걸음 걸이임을 알 수 있다.
- 16 어머니는 하늘을 보며 아들이 어딜 가거나 몸 성히 지내기를 기원하고 있다.

**작품 한눈에 보기**

p.69

연                  작은 새                  연실                  안도감

**차곡차곡 실력 체크**

p.70~71

- 01 ⑤                  02 ②                  03 ⑤                  04 ②                  05 ㉠ 연, ㉡ 먼 하늘 여행을 꿈꾼다. ㉢ 빛살, ㉣ 곧게 하늘로 뻗어 있다.                  06 ④
- 07 아들이 마을을 떠났다.

- 01 어머니가 연이 날아갈까 걱정하는 것은 연과 함께 아들도 마을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라)와 (마)에서 정작 연이 날아가자 어머니가 아들을 찾지 않은 것은 아들이 떠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02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읍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마을이며, 계절적 배경은 이른 봄이다. 따라서 시골의 봄을 나타낼 수 있는 무대 장치는 적절하다.

03 (마)에서 어머니는 연이 날아가 버린 텅 빈 하늘을 보면서 허망스럽게 아들이 어디에서나 몸 성히 잘 지내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다.

04 이 소설에서는 '땀들었다', '있었다'와 같이 과거형 종결을 사용하고 있다.

05 이 소설에서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직유법에서 표현하려는 대상을 '원관념', 빗대어 사용하는 대상을 '보조 관념'이라 하며,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06 ㉠은 평소와 다른 연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연을 날리는 아들에게 무언가 사건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07 이 소설에서 '연'은 아들을 상징한다. 따라서 봄바람에 연실이 끊어져 연이 하늘로 날아가 버린 것은 아들이 마을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촌놈과 떡장수**

**잠깐! 소설 미리보기**

p.72

촌놈    모욕    떡장수    떡    사과

**차근차근 내용 체크**

p.73~76

1 ⑤    2 ④    3 ④    4 ④    5 ③    6 ③    7 ②    8 ③    9 내가 장수에게 떡장수라고 불렀다.    10 ③    11 ③    12 ③    13 ③    14 인절미

- 1 부모님은 '나'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 이사를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 2 '나'가 지금 사는 동네는 낡은 주택이 빼곡이 들어찬 산동네로 삭막한 느낌을 준다. 이는 자연이 있었던 시골 동네와 대비가 된다.
- 3 예전에 자신이 광식을 무시했던 것처럼 자신이 무시를 당하는 처지가 되자 광식이 생각이 난 것이다.
- 4 (라)와 (마)는 '나'와 장수의 다툼에 대한 내용이다. (바)에서는 '나'와 어머니와의 갈등이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부수적인 갈등으로 그 원인은 장수와와의 싸움이다.
- 5 '나'는 학교에서는 자신을 모르는 척하던 장수가 피시방에서 아는 체하는 것은 자신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6 엄마는 평소에 '나'에게 싸우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 맞고 들어온 것이 속상해서 등짝을 때린 것이다.



- 7 '나'는 은행나무 잎이 깔린 폭신한 보도블럭을 걸으면서 시골 길을 생각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광식이를 생각하게 되었다.
- 8 '나'가 떡 그릇 앞에 있는 장수를 보면서 놀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장수와 떡장수 할머니를 연결짓지는 못했다. 할머니가 장수에게 하는 말을 듣고 비로소 둘 사이의 관계를 눈치챈 것이다.
- 9 '나'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수에게 떡장수라고 한 것이 상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10 '나'는 자신의 실수로 인한 미안함과 부끄러워하고 있을 장수에 대한 민망함 때문에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다.
- 11 이 소설에서 장수에 대한 설명은 확실한 것은 아니다. 주로 '나'의 추측을 바탕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 12 '나'가 장수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면서 장수의 심리를 이해하고 있다. 이와 관계 깊은 한자 성어는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여 봄.'이라는 의미의 '역지사지'이다.
- 13 ㉠에서는 자신이 일부러 떡장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있고, ㉡에서는 그 행위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
- 14 인절미를 먹는 '나'를 통해 '나'가 떡을 좋아한다는 것과 그 때문에 떡장수라는 말을 떠올렸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인절미가 목에 걸린 '나'를 장수가 도와준 것을 계기로 '나'는 장수에게 사과를 할 수 있었다.

작품 한눈에 보기

p.77

촌놈 떡장수 성장 친근감

차곡차곡 실력 체크

p.78~79

- 01 ⑤      02 ④      03 ①      04 ③      05 ⑤
- 06 ①      07 ⑤      08 '나'가 광식이처럼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 01 이 소설의 서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 속 인물인 '나'이다. 장면이 달라지면서 서술자가 변하지는 않았다.
- 02 학생 수가 많지 않은 시골 학교에서 잘해 봤자 더 넓은 세상으로 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로, 견문이 좁은 사람을 의미하는 '우물 안 개구리'가 적절하다.
- 03 '나'가 장수가 떡장수 할머니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고 놀란 것은 평소 장수의 외모나 복장을 보고 잘사는 집 아이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04 장수 할머니가 떡장수 할머니임을 밝혀지면서 '나'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고, 장수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나'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기보다는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 05 '나'와 장수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은 '촌놈'과 '떡장수'라는 별명이다. 또한 갈등을 해소하게 해 주는 것은 '목에 걸린 떡'이다.
- 06 표현 방법의 효과를 파악하며 소설을 감상하는 것은 <보기>에서 제시한 '성찰하며 감상하기'와는 거리가 멀다.
- 07 (가)를 보면 '나'는 쪽지 시험에서 100점을 맞기도 하고, 음악 시간이나 축구 시간에도 수업을 잘 따라간다. '나'의 고민은 친구들이 자신을 촌놈이라고 놀리는 것이다.
- 08 나는 자신이 광식이와 같은 처지가 되면서 광식이의 심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03 희곡, 시나리오

핵심 체크 | p.80~82 |

- 1 연극 2 X 3 대사, 동작, 무대 4 영화 5 C.U. 6 X 7 〇
- 8 갈등 9 종합 예술 10 〇

개념 확인 문제

p.82

- 1 ㉠ 무대 지시문 ㉡ 대사 ㉢ 동작 지시문 2 ㉠ 발단 ㉡ 전개 ㉢ 절정 ㉣ 하강 ㉤ 대단원 3 S#(장면 번호) 4 (1) F.I. (2) O.L. (3) C.U. (4) Ins. 5 ㉢, ㉤

잠깐 시나리오 미리보기

p.83

열정 파업 빌레

(1) 빌리 엘리어트

차근차근 내용 체크

p.84~86

- 1 ⑤ 2 ①, ② 3 ① 4 다시 차에 오른다. 5 ① 6 ④ 7 (1) 직유법 (2) 우아한 모습으로 내려가고 8 ⑤ 9 ③ 10 ⑤ 11 ⑤ 12 ⑤

- 1 빌리가 권투보다는 발레에 흥미를 느꼈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그 이유는 나타나지 않는다.
- 2 윌킨슨 선생님과 대화의 통해 볼 때, 아버지의 반대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환경이 빌리가 발레를 배우는 데에 장애가 됨을 알 수 있다.

- 3 빌리는 빌리에게 발레 학교 오디션을 권하는 말을 선생님이 오디션을 보겠다는 말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 4 차에서 내렸던 빌리가 오디션에 대한 선생님의 제안을 듣고 다시 차에 오르는 것에서 선생님의 말에 흥미를 느끼고 더 대화를 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 5 (다)에는 빌리네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화되고 빌리가 발레 수업을 중단하게 된 상황이 나타나 있다.
- 6 장면이 시작되는 부분이므로 장면 번호가 들어가야 한다.
- 7 우아하게 내려가는 동작을 공주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 8 빌리는 아버지에게 발레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보여 주어 발레를 배우는 것을 허락받고 싶어 한다.
- 9 주먹질로 인해 빌리는 오디션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 10 빌리 아버지에게 뒷바라지를 잘해 주겠느냐는 질문은 하지만 발레를 반대한 이유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 11 발레를 누구에게 배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
- 12 빌리는 발레를 추면서 새처럼 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였다.

**작품 한눈에 보기**

p.87

대사 권투 탄광 파업

**차곡차곡 실력 체크**

p.88~89

01 ②      02 ④      03 ④      04 ④      05 ⑤  
 06 ③      07 ②      08 직유법, 공주처럼 내려가고

- 01 이 시나리오에는 가난한 탄광 마을의 소년 빌리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의 반대를 발레에 대한 열정으로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모습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 주고 있다.
- 02 (나)에서 윌킨슨 선생님은 빌리의 재능을 칭찬하며 발레 학교에 갈 것을 권유하고 있고, (마)를 보면 직접 발레 학교에 추천서까지 보내 준다.
- 03 빌리가 권투를 하기 바라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발레를 배우던 빌리는 이미 아버지에게 들켜 혼이 난 상태이다. 빌리는 아버지가 더 화를 낼 것이 두려워 아버지에게 알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 04 빌리가 발레 학교의 오디션에 참여한 것은 윌킨슨 선생님의 제안 때문이다. 빌리가 발레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레 학교를 일찍부터 준비해 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05 (다)에서는 심사 위원은 빌리의 폭력적인 행동을 문제시 하고 있다. 때문에 빌리는 발레 학교 오디션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라)에서 빌리는 발레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보여 주며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 06 ㉠은 얼어 죽을 정도로 추운 날씨에도 발레 연습에 열중인 빌리의 열정적인 모습을 부각시킨다.
- 07 질문에 대한 빌리의 첫 대답이 '그냥 기분이 좋아요.'이다. 이를 통해 ㉠은 춤을 출 때의 느낌이나 기분을 묻는 질문임을 알 수 있다.
- 08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2) 숨숨한 그대**



**드라마 대본 미리보기**

p.90

치매 요리 평양온반

**차근차근 내용 체크**

p.91~93

1 ②    2 ④    3 ③    4 ⑤    5 장면 번호(scene number), 시나리오에서 각 장면의 차례를 나타낸다. 6 ③    7 ①    8 ④    9 ①    10 ③    11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이다.

- 1 성태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추억이 담긴 평양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자, 그 바람을 들어 드리기 위해 음식을 연구한다.
- 2 국진이는 지금 피부 미용을 배우기 위해 읍내에 접수하러 가는 중이다.
- 3 성태는 국진이가 피부 미용을 공부하기로 했다고 말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다.
- 4 성태가 유머 감각이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6 ㉠은 대사 중에 독백에 해당한다. 독백은 등장인물이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다.
- 7 친구들은 성태가 불고기 냄새를 맡은 것에 놀라고 있다.
- 8 처음에는 성태의 요리 실력을 믿지 못하던 엄마도 음식을 먹어 보고 놀란다.
- 9 '사이'라는 지시문은 가족들이 음식을 모두 먹을 만큼 시간이 흘렀음을 표현한다.
- 10 아빠는 성태가 만든 추억의 음식을 먹으며 과거의 일이나 마 기억하던 어머니의 눈빛이 흐릿해지자 서둘러 말을 하고 있다.

11 과거를 기억하는 할머니의 말에서 집에 먹을 것이 모자른 것이 미안해서 음식 장사를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한눈에 보기

p.94

실향민 치매 온반

**차곡차곡** 실력 체크

p.95~96

01 ①      02 ⑤      03 ②      04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성태를 포기하게 하려고 한다.      05 ②      06 ③      07 ④  
08 성태-음식 솜씨를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 / 할머니-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는 계기가 된다.

- 01 (라)와 (마)에서 할머니는 이복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할머니가 이복 출신임을 드러내면서 이야기에 현실감을 불어넣는다.
- 02 음식을 먹던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내용은 과거의 이야기로 할머니가 과거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할머니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는 없다.
- 03 국진이의 말을 통해 볼 때, 성태나 국진이나 모두 공부를 잘하지는 못함을 알 수 있다. 국진이는 시험 결과에 상심하는 성태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며 위로를 하고 있다.
- 04 엄마는 성태가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성태가 식당 운영을 포기하게 하려고 성태가 식당 운영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 05 (라)에서 아빠가 온반 한 그릇을 모두 비웠는데, 그 온반은 성태의 대사로 보아 성태가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 06 (다)의 상황을 볼 때, 성태는 학교에서 자주 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안 잤다는 성태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담임 선생님이 성태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07 (다)의 담임 선생님의 말을 통해 성태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라)의 경험에서 자신감을 얻은 성태는 <보기>에서 진로 계획서에 자신의 진로를 다시 한 번 자신 있게 쓴다. 즉, 이 드라마는 성태가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 08 성태가 만든 온반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음으로써 성태는 음식 솜씨를 인정받게 된다. 또한 할머니는 성태의 온반을 먹고 과거의 일을 떠올리고 있다.

04 수필

핵심 체크 | p.97~98

1 X    2 중수필    3 개성    4 ○    5 성찰, 교훈

개념 확인 문제

p.99

1 ④    2 ㉠, ㉡    3 ㉠, ㉡, ㉢    4 (1) 경수필 (2) 기행문 (3) 칼럼 (4) 수기

- 1 수필은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글이다.
- 2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할머니의 다정했던 과거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데서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난다.
- 3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기 위해 개성적인 표현 방법을 쓸 수 있으나, 표현 방법이 다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험을 공유하지 않은 독자도 고려하여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 4 자서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쓴 글이며, 칼럼은 신문, 잡지 등에서 시사·사회 풍속 등을 비평하는 글이다.

(1) 엄마의 눈물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00~101

1 ②    2 ④    3 ⑤    4 ③    5 ④    6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한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사랑과 응원을 보내기 위해

- 1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쓴 수필이다. 수필은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인 글이다.
- 2 ‘나’는 자신을 걱정하며 고생하는 엄마를 떠올리고 소아마비를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고 한 것이다.
- 3 (나)를 통해 딸을 위해 헌신하는 엄마의 모습과 이런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 4 ‘기슴 속으로 흐르던 엄마의 눈물’은 몸이 불편한 딸에 대한 걱정, 안쓰러움과 딸을 위하는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뜻한다.
- 5 어머니는 신과 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식을 사랑하고 지켜 주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작품** 한눈에 보기

p.102

사랑	일기장	걱정	당당하게	등골길
전사	어머니	경험	감사	응원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03

01 ① 02 ④ 03 ⑤ 04 ⑤

05 필사적인 투쟁, 등교 과정이 몹시 고되고 힘들었음을 의미한다.

- 01 이 글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수필이다. ①은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이다.
- 02 어머니의 은혜를 모르는 세태에 대한 비판은 나타나지 않는다.
- 03 '엄마의 눈물'은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몸이 불편한 자식이 당당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등을 담고 있다.
- 04 '용감하고 인내심 많고 씩씩하고 하느님 같은 어머니들의 외로운 투쟁에 사랑과 응원'을 보내기 위해 쓴 것이다.

(2) 네모난 수박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04~105

1 ① 2 ④ 3 아크릴 상자 4 ① 5 오늘날 우리의 삶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6 ⑤

- 1 이 글은 일상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글쓴이의 성찰을 다룬 수필로, 정해진 형식이 없다.
- 2 인위적으로 외형만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드러난다.
- 3 아크릴 상자는 둥그런 모양으로 자라려는 수박의 본성을 억압해 강제로 네모난 모양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 4 수박을 의인화해서 본성을 억압하는 현실과 인위적 형태의 삶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5 (사)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삶의 속도가 너무 빨라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성찰할 시간도 없이 외부의 흐름에 휩쓸려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글쓴이는 인간으로서의 맛과 향기를 잃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작품 한눈에 보기

p.106

현대	인위적	자연적	맛	향
의인화	외형	비판적	회복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07

01 ② 02 ④ 03 ③ 04 ⑤ 05 의인법을 사용해 인위적으로 외형을 변화시키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 01 수박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며 이런 상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데서 알 수 있듯 글쓴이의 주관적 해석이 나타난다.
- 02 네모난 수박은 유전자 변형이 아니라 본질은 그대로 두고 인위적으로 외형만 바꾼 것이다.
- 03 네모난 수박은 인위적으로 외형이 네모 모양으로 변화했으며, 현대인들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외부의 흐름에 휩쓸려 인위적 삶을 살고 있다.
- 04 글쓴이의 의도는 빠르게 흘러가는 사회 발전의 속도에 휩쓸려 진정 자신이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놓치는 일 없이 자신이 지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 05 ①, ④은 수박을 사람처럼 나타난 표현으로, 인위적으로 겉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

2 읽기

01 예측하며 읽기

핵심 체크 | p.110~111

- 1 배경지식 2 글의 정보 3 능동적 읽기 4 제목 5 의도 6 깊이 있게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10~111

1 ⑤ 2 ① 3 ⑤ 4 ③

- 1 사회적 현실을 바탕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한 것이다.
- 2 글을 끝까지 읽으면 결말을 이미 알게 되므로, 글의 결말은 읽는 도중에 예측해 본다.
- 3 글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것이다.
- 4 예측하며 읽기는 답을 스스로 찾아가며 읽는 능동적 읽기 과정으로 이를 통해 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 보며 이해할 수 있다.

군사들에게 종이 옷을 보낸 인조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12~114

1 ② 2 ① 3 옷감 사이에 종이를 넣는 이유 4 ③ 5 ② 6 ④ 7 ② 8 따뜻한, 지혜

- 1 책의 차례로 보아 조선 시대의 옷과 관련된 정보를 신분과 질서, 배려와 축복, 지혜, 마음과 예절 같은 주제로 엮어서 조선 시대 옷과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①은 글의 내용을 읽어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제목만 보고는 예측하기 어렵다.
- 3 글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 4 숨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숨을 대신하고, 숨과 함께 썼을 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재료가 종이였다.
- 5 종이 만드는 과정에 대한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해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 6 종이 옷은 솜옷을 대신하는 방한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종이가 비싸다 보니 종이 옷을 만들 때 재활용 종이를 쓴 것이다.
- 7 조선 시대 왕처럼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 글을 통해 구성원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사회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에게 추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8 (마)를 통해 군사를 생각하는 인조의 배려와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낸 조상들의 지혜를 알리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핵심 포인트

p.113~114

- 01 제목, 구조, 방한용      02 영향, 가치, 방한  
03 지혜, 의도

내용 한눈에 보기

p.115

이유	가치	지혜	정보	배경지식
사회적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16

- 01 ⑤      02 ④      03 ②      04 ⑤  
05 윤미는 글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측했고, 준희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해 이어질 내용을 예측했다.
- 01 나머지는 모두 글을 읽는 과정에서 예측한 것이지만 ⑤는 읽기 전에 글의 제목을 보고 예측한 것이다.
  - 02 종이 옷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 03 이 글을 통해 글쓴이가 전하고자 한 바, 즉 글쓴이의 의도를 예측한 것이다.
- 04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예이다.
- 05 윤미와 준희는 예측에 활용한 요소가 달라 각각 예측한 내용도 달라졌다.

02 요약하며 읽기

핵심 체크 | p.117

- 1 요약    2 삭제    3 논설문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17

- 1 ⑤    2 ①

- 1 글의 내용을 요약할 때에는 글을 읽는 목적이나 글의 구조, 글의 전개 방식, 요약의 분량, 정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2 글의 중심 내용이 첫 번째 문장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독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18~119

- 1 ④    2 ④    3 ③    4 독도의 생태계    5 ⑤

- 1 이 글은 설명문으로 ‘처음-중간-끝’ 구조에 따라 각 부분의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④는 이야기 글을 요약하는 방법이다.
- 2 (나)의 마지막 문장이 중심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 문장을 선택한다.
- 3 (라)는 세부 내용을 포괄하는 상위어를 사용해 요약하고, (마)는 세부 내용을 삭제해 간추려 요약한다.
- 4 (라)는 독도의 다양한 새들, (마)는 독도의 식물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모두 독도의 생태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 5 글의 마무리 부분으로 앞의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⑤는 글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핵심 포인트

p.119

- 02 가치, 선택, 선택

**내용** 한눈에 보기

p.120

소개	가치	선택	생태계	일반화
삭제	재구성	전체	목적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21

01 ④      02 ④      03 ③      04 ①

05 독도에서는 다양한 새를 찾아볼 수 있다. - 일반화

- 01 이 글은 독도의 가치와 생태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으로 ‘처음-중간-끝’으로 이루어져 있다.
- 02 (가)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 (나)는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를 설명하는 문단이므로 (가), (나)는 독도의 가치로 묶을 수 있다. (다)는 독도의 다양한 새, (라)는 독도의 식물에 대해 설명하는 문단이므로 (다), (라)는 독도의 생태계로 묶을 수 있다. (마)는 독도에 대한 태도를 당부하며 마무리하는 끝부분이다.
- 03 읽기의 목적에 따라 요약 방법이 달라진다. 독도의 자연환경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이 글을 요약할 때에는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 04 (바)는 중심 문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재구성’의 방법으로 문단을 요약한다.
- 05 글에 제시된 세부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나 개념(상위어)을 활용해 요약한다.

### 3 | 문법

#### 01 언어의 본질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24~126

1 X   2 O   3 자의성   4 필연적이지 않다   5 사회적   6 언어의 사회성  
7 X   8 시간   9 ③   10 ①   11 X   12 X   13 자의성  
14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창조성

- 6 사회 구성원 사이의 약속을 어기고 [하늘]을 [꽃잎]이라 바꾸어 부르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언어는 개인이 함부로 바꾸어 쓰면 안 된다.
- 9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언어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므로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된다.

10 현재는 사라진 언어는 ‘생원’이다. ‘나모’는 말소리가 변화한 예이고, ‘어리다’는 예전에는 ‘어리석다’는 의미로 쓰였으나 지금은 ‘나이가 적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의미가 변한 예이다. ‘누리꾼’이나 ‘텔레비전’은 새로운 대상이 생기면서 새로운 말이 생긴 예이다.

14 말소리와 의미의 결합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므로 여러 가지 말이 옹모될 수 있다. 또한 이미 알고 있는 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단어의 수가 무한하다.

**잠깐!**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27

1 언어의 본질

- 1 (1) • 닉이 ‘과갈라’라는 새로운 말을 만든 것은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이 있다.
  - 닉이 ‘음악’을 ‘과갈라’라고 부른 것은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다.
  - 닉이 “과갈라.”라고 말했다고 했을 때,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이 알아듣지 못한 것은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
- (2) • ‘과갈라’라는 말소리가 나타내는 의미를 닉과 닉의 가족은 알고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므로 ‘과갈라’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 ‘과갈라’라는 말소리가 나타내는 의미를 닉과 닉의 가족만 알아들을 뿐 다른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라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과갈라’는 언어라고 할 수 없다.
- 2 (가) ‘열매’의 옛말은 ‘여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은 대상을 부르는 말이 달라진 것이다. 이를 통해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고마워’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가 나라마다 다른 것을 통해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가 유연히 맺어진 것이라는 언어의 자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남학생은 ‘사람’, ‘나무’, ‘집’이라는 세 단어를 이용하여 열 가지 이상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이 세 단어를 포함한 문장을 무수히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인간은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표현을 무한히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언어의 창조성을 확인할 수 있다.
- (라)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을 ‘눈’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다.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눈’을 ‘코’로 바꾸어 부르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언어의 사회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27

1 ⑤   2 ④

1 닉이 만든 ‘과갈라’라는 말은 사회 구성원의 약속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쓰이는 ‘음악’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

- 2 (나)는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 주는 예이다. 동음이의어가 존재하는 것 역시 말소리와 의미의 결합이 임의적임을 보여 주는 예이다. ① 언어의 규칙성 ② 언어의 역사성 ③ 언어의 사회성 ④ 언어의 창조성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28

- 01 의사소통 02 언어, 문화 03 의미, 말소리 04 필연적  
 05 (1)㉠(2)㉡(3)㉢(4)㉣ 06 언어의 창조성 07 다른 사람  
 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08 언어의 역사성 09 자의성  
 10 어사 11 ○

- 01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02 언어라는 의사소통 수단이 있기에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또한 언어를 도구로 문화적 산물을 축적하고 문화를 발전시킨다.  
 03 언어는 의미(내용)와 말소리(형식)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04 언어는 의미(내용)와 말소리(형식)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둘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06 인간은 새로운 말과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언어의 창조성이라 한다.  
 07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08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이는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 준다.  
 09 말소리와 의미의 결합이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라마다 말소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10 나머지는 새로 생긴 말들이나 '어사'는 사라진 말이다.  
 11 사회적 약속에 따라 '짜장면'을 표준어로 인정한 것은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사회적 약속이라는 언어의 사회성을 보여 준다.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29~130

- 01 ①, ③ 02 ④ 03 ① 04 ④ 05 ④  
 06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07 언어의 창조성, 인간은 한정된 단어를 가지고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문장을 무한히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08 ② 09 ③  
 10 ⑤ 11 ③ 12 ①

- 01 ② 인간이 내는 소리 중 발음 기관을 통해 나오는 소리 가운데 의사소통 수단이 되는 것이 언어에 해당한다. ④ 언제든 새로 만들 수 있다. ⑤ 동물과 달리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다.

- 02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03 '강아지'를 나타내는 언어 표현이 나라마다 다른 것은 말소리와 의미의 결합이 필연적이지 않음을 보여 준다.  
 04 '뫼'는 '산(山)'의 옛말, '가람'은 '강(江)'의 옛말, '미르'는 '용'의 옛말, '즈믄'은 '천(千)'의 옛말로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대상이나 개념이 사라졌거나 다른 말에 밀려 지금은 쓰이지 않게 된 말의 예이다. 그러나 '영감'은 의미가 변한 말로 예전에는 정삼품과 종이품의 벼슬아치를 이르던 말이었으나 현재는 나이가 많아 중년이 지난 남자를 이르는 말이다.  
 05 수박의 옛말은 '슈박'이었던 것처럼 언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06 ㉠은 시대 변화에 따라 대상이나 개념이 사라져 지금은 쓰이지 않게 된 말이고, ㉡은 말소리가 변한 말로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한 예이다.  
 07 앵무새는 가르쳐 준 말만 할 수 있지만 인간은 배운 말을 바탕으로 무한히 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08 ①, ③, ④, ⑤는 모두 언어의 말소리와 의미의 결합이 임의적임을 보여 주는 예이나, ②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사라진 예로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 주는 예이다.  
 09 '밭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을 '밭자국', '바다에 이는 물결'을 '파도'라고 말하기로 한 사회적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낱말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10 새로운 문장을 계속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언어의 창조성을 보여 준다.  
 11 <보기>의 '어사'는 왕명으로 특별한 사명을 띠고 지방에 파견되던 임시 벼슬로 현재는 가리키는 대상이 사라진 말이다. ③ 역시 현재는 사라진 말이다. ② 새로 생긴 말 ①, ④, ⑤ 말소리나 의미가 변한 말  
 12 <보기>의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언어로 인정받는다는 언어의 사회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이다. ② 언어의 규칙성 ③ 언어의 창조성 ④ 언어의 역사성 ⑤ 언어의 자의성

## 02 품사의 종류와 특징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31~133

1 단어, 품사 2 기능, 의미 3 건다, 밟다, 하얗다, 깨뜨리다 / 집, 그것, 어머니, 하늘 4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준다. 5 X 6 대명사 7 · 명사: 그릇, 자유 · 대명사: 이곳, 우리 · 수사: 하나, 넷째 · 동사: 던지다, 묻다 · 형용사: 투명하다(형용사) 8 X 9 3 10 감탄사 11 옛, 너무, 어떤, 주룩주룩

- 3 형태가 변하는 것은 '걸다, 밟다, 깨뜨리다'(동사), '하얗다'(형용사)와 같은 단어이며 나머지 단어들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4 '꼭'은 '잡다'를 꾸며 주는 부사, '현'은 '물건'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7 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대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대신 가리키며, 수사는 순서나 수량을, 동사는 움직임을,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 11 수식언어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피다(동사), 깨끗하다(형용사), 에그머니(감탄사), 꽃(명사), 옛, 어떤(관형사), 너무, 주룩주룩(부사)

### 잠깐!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34

- ① 품사의 뜻과 분류 기준
  - ① 명사-㉠ ② 대명사-㉡ ③ 수사-㉢ ④ 동사-㉣ ⑤ 형용사-㉤
  - ⑥ 관형사-㉥ ⑦ 부사-㉦ ⑧ 조사-㉧ ⑨ 감탄사-㉨
- ② 품사의 종류와 특징
  - ① · 흰둥이 가/도/만 밥을/은 먹었니
    - 흰둥이 가/도/만 밥을/은 먹었어.
    -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준다.
  - ② · 야/아이고머니! 놀랐잖아!
    - 어머/으악! 깜짝이야.
    - 놀랐을 때, 누군가를 부르거나 누군가에게 대답할 때 사용한다.

###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34

1 ③ 2 ④

- 1 나머지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지만, '달고'(기본형 '달다')는 대상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2 느낌, 부름, 응답 등을 나타내며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과 직접 관련을 맺지 않는 단어가 감탄사이다. '지연아'는 '명사(지연) + 호격 조사(아)'로 구성된 말로 감탄사가 아니다.

###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35

01 형태, 기능, 의미, 품사 02 ① ㉠ ② ㉡ ③ ㉢ ㉣ ④ ㉤ ⑤ ㉥ 03 명사 - 친구, 세종대왕 / 대명사 - 이것, 너희 / 수사 - 둘, 첫째 / 동사 - 먹다, 뛰다 / 형용사 - 새롭다, 곧다, 흐리다 / 관형사 - 무슨, 옛 / 부사 - 꽤, 아주 / 조사 - 은/는, 까지 / 감탄사 - 그림, 어머, 이보게 04 와, 가, 를 05 순서, 수사 06 조사, 뜻 07 뽕뽕, 일찍, 전혀 08 움직임, 성질 09 ㉠ 그 사람은 나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 종이 울리자, 모든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나왔다. 10 향기롭다, 쓸쓸하다, 깨끗하다 11 나, 소원, 첫째, 통일, 둘째, 셋째

- 01 단어의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형태, 의미, 기능의 세 가지가 있다.
- 04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말이다.
- 07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단어를 부사라 한다.
- 08 용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그 형태가 변하는 것으로 동사와 형용사가 이에 속한다.
- 09 '그'는 '사람'를, '모든'은 '아이들'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빙그레'는 '웃었다'를, '우르르'는 '뛰어나왔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10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형용사이다. 나머지는 모두 동사이다.
- 11 명사(소원, 통일), 대명사(나), 수사(첫째, 둘째, 셋째)를 통틀어 체언이라 한다.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36~137

01 ⑤ 02 ② 03 ① 04 ④ 05 ③  
06 ① 07 ① 08 '외쳤다'는 동사, '깨끗하다'는 형용사로 둘 다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한다. 09 ④ 10 ③  
11 ② 12 ⑤ 13 ② 14 안타까운 → 안타깝다, 컷다 → 크다, 가는 → 가늘다 15 ④

- 01 품사는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끼리 묶어 분류해 놓은 단어의 갈래이다. ⑤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다.
- 02 '집다(동사), 느리다(형용사), 마시다(동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고, '나(대명사), 유리창(명사), 무슨(관형사)'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
- 03 ㉠은 동사로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 ㉢은 부사로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 ㉤은 관형사로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부사와 관형사는 모두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수식언어라는 공통점이 있다.

- 04 <보기>와 ④의 빈칸에는 서술어를 꾸며 주는 부사가 들어가야 한다. ①은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 ②는 문장의 서술어가 되는 동사, ③은 체언이, ⑤는 조사가 들어간다.
- 05 ‘첫째’는 수사, ‘할머니’는 명사 ‘그곳’은 대명사로 모두 체언이다. 체언은 주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며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거나 홀로 쓰이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① 명사 ② 수식언 ④ 감탄사 ⑤ 조사
- 06 ‘세’는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관형사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고 수사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다.
- 07 놀람, 부름, 느낌, 대답 등을 나타내는 말을 감탄사라 한다. ‘소영아’는 ‘소영(고유 명사) + 아(호격 조사)’가 결합된 것이다.
- 08 ‘외쳤다’는 움직임を示하는 동사이며, ‘깨끗하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둘 다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 09 ㉠~㉣은 대상의 이름을 대신해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은 명사이다.
- 10 ‘만’은 ‘한정’의 의미를 더하고, ‘도’는 ‘첨가’의 의미를 더하는 조사이다. <보기>에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는 ‘를’이다.
- 11 해주(명사), 는(조사), 그(관형사), 집(명사), 예(조사), 몰래(부사), 들어갔다(동사)
- 12 독립언 - 어머니, 응 / 관계언 - 을/를, 초차 / 수식언 - 온갖, 벌써 / 체언 - 둘째, 기능, 저기
- 13 ① ‘먼저’, ‘더’(부사), ③ ‘곳’(명사) ④ ‘세우다-세워’(형태가 변함) ⑤ ‘그럼’(감탄사로 독립언)
- 14 <보기>에 해당하는 품사는 형용사이다. ‘떨어지다, 가리다, 웃다’는 동사이다.
- 15 ‘끝났어’와 ‘오른다’는 모두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며,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 03 상황에 맞는 어휘와 표현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38~140

- 1 외래어 2 X 3 하늘, 나무, 반짝이다 4 느낌 5 X 6 은어 7 ② 8 속 9 동음이의어 10 꽃
- 3 ‘뽕’, ‘오렌지’ - 외래어, ‘학생’, ‘교실’, ‘연세’ - 한자어
- 4 한자어 ‘감정, 감상, 예감’은 고유어 ‘느낌’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 7 ‘세절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뜻으로 청소년들이 주로 쓰는 줄임말이다.
- 10 모두 꽃의 개별적인 이름이다. 상위어는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단어여야 한다.

#### 잠깐

####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41

#### 1 어휘의 체계와 양상

- 1 (1) 하늘, 모두 / 매장, 기념품 / 레스토랑, 홈페이지 (2) ㉠ 행사 ㉡ 드립니다 ㉢ 길 도우미/길 안내기
- 2 시청자들에게 표준어로 말한 이유: 전국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므로 모든 시청자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가자에게 지역 방언으로 말한 이유: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참가자가 친근감을 느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41

#### 1 ㉠ 2 ㉡

- 1 <보기>는 한자어에 대한 설명이다. ① 진주(한자어), 슬리퍼, 볼펜(외래어) ②, ③ 고유어 ④ 외래어
- 2 <보기>는 유의 관계를 보여 주는 예이다. ① 반의 관계 ② 상하 관계 ③ 서로 관련 없음. ④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되는 것이지 유의어는 아니다.

####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42

- 01 고유어, 한자, 외래어 02 고유어 03 ㉠ 수리하다 ㉡ 수선하다 ㉢ 치료하다 04 고유어 - 누렇다, 구름, 꽃 / 한자어 - 체육관, 연필, 문화 / 외래어 - 핫도그, 아이스크림, 샤프 05 표준어, 유대감/친근감
- 06 사회 방언 07 나이 08 전문어, 비밀, 은어 09 (1) ㉠ (2) ㉡ (3) ㉢ (4) ㉣ (5) ㉤ (6) ㉥ 10 (1) 유의어 (2) 반의어 (3) 동음이의어
- 11 (1) 가늘어진다 (2) 빠른 (3) 감상 (4) 다음
- 02 ‘황색(黃色)’을 나타내는 우리말에는 ‘누렇다. 누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등이 있고, 표면이 거친 느낌을 나타내는 우리말에는 ‘거칠다, 까끌까끌하다, 거칠거칠하다’ 등이 있다.
- 03 고유어에 비해 한자어는 세분화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 05 표준어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쓸 수 있고, 지역 방언은 지역에 따라 달라진 말로 같은 방언을 쓰는 사람들에게 유대감을 준다.
- 06 사회 방언은 이를 사용하는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다. 청소년의 언어와 어른들의 언어가 다른 것, 남녀에 따라 쓰는 어휘가 다른 것, 특정 직업이나 집단에서만 사용하는 어휘가 있는 것 등은 모두 사회적 요인에 따라 어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 07 나이에 따른 사회 방언의 예이다.
- 08 전문어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끼리 정확하고 신속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며 은어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특정 집단 안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 10 '얼굴'과 '낯'은 비슷한 의미를 지닌 유의어이며, '떨다'와 '가깝다'는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반의어, 먹는 '배'와 사람의 '배'는 우연히 소리가 같은 것일 뿐 의미가 전혀 다른 동음이의어이다.
- 11 유의어는 문맥에 따라 그 의미에 차이가 있으므로 적절히 골라 써야 한다.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43~144

- 01 ②      02 ①      03 ⑤      04 ④      05 ③
- 06 ②      07 ②      08 ⑤      09 ④      10 ①
- 11 ③      12 ②, ④      13 ③, ⑤      14 ③

15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으로, 그 의미를 모르는 상대와 대화할 때에는 상대가 아는 말로 표현해야 한다. / 손자가 청소년들이 쓰는 줄임말을 사용해 할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안 된 것이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

- 01 고유어는 '과랴다, 새과랴다, 시과랴다, 과룻과룻하다, 푸르스름하다', '달다, 달콤하다, 달짝지근하다,' '동그랴다, 동그랴다, 동그스름하다, 동글동글하다'처럼 색깔, 맛, 모양 등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 02 한자어-㉠ 치과, ㉡ 수업, ㉢ 음료수 / 외래어-㉣ 샐러드, ㉤ 리본
- 03 '학명'은 전문적인 개념을 나타내며, '버스'는 우리 문화에 없던 새로운 사물이 나타날 때 생긴 말이다. '연세'와 '나이'는 기본적 의미는 같으나 '연세'가 높임의 의미를 지닌다.
- 04 반의어는 서로 공통되는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동시에 대립되는 한 가지 의미 요소가 있어야 한다. '할머니'의 반의어는 '할아버지', '아이'의 반의어는 '어른'이다.
- 05 <보기>의 표지판은 각 지역의 방언으로 적어 그 지역의 특색을 보여 주며 정감이 느껴진다. 지역 방언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면서 변한 것이다. 사회적 요인이 언어 변화의 원인이 된 것은 사회 방언이다.
- 06 특정 집단(심마니들)에서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암호처럼 사용하는 은어이다. ① 완곡어 ③ 유행어 ④ 전문어 ⑤ 비속어
- 07 말하는 사람의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부르는 말이 다른 경우이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을 부를 때 남성은 '누나'라고 하고, 여성은 '언니'라고 한다.

- 08 향토적 감성과 토속적인 색채, 현장감을 위해 문학 작품에 지역 방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 09 값이 '오르다'의 반의어는 '내리다'이다.
- 10 나머지 단어들은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괄하는 상·하의어로 묶여져 있으나, '소설'과 '시'는 모두 '문학'의 하의어이다.
- 11 하나의 낱말이 두 가지 이상의 관련된 의미로 쓰이는 낱말의 예이다. ㉠은 중심 의미, ㉡은 주변 의미로 쓰였으므로 다의 관계이다. '말을 댔다'에서 '댔다'와 같은 단어가 ㉠, ㉡과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 12 ② '원숭이'의 상의어는 '포유류, 동물, 생물' 등 여러 가지가 있다. ④ '가끔 - 이따금 - 때로' 등 여러 개가 무리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① 상의어일수록 포괄적 의미를 지닌다. ③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라도 의미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단어를 써야 한다. ⑤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의미 요소들은 같다.
- 13 ㉠, ㉡은 동음이의어이다. ⑤는 동음이의어에 대한 설명이고 ③의 '쓰다'는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①, ③, ④는 다의어에 대한 설명이다.
- 14 전문어는 전문적 분야에서 정확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에 여러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15 할아버지와 손자는 세대가 달라 쓰는 어휘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 청소년들은 '생선(생일 선물)', '문상(문화 상품권)'과 같은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 4 | 듣기·말하기

### 01 면담하기

핵심 체크 | p.148 |

1 목적 2 정보 3 X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48

1 ④ 2 ④

- 1 면담의 과정은 '면담 목적 정하기 → 면담 대상 정하기 → 면담 질문 마련하기 → 면담하기 → 면담 결과 정리하기'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 2 면담 질문을 만들 때에는 면담 대상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49~150

- 1 ⑤ 2 진로 발표회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구를 소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이다. 3 ⑤ 4 ④ 5 ③ 6 ④

- 1 면담 대상이나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까닭은, 이를 바탕으로 면담 질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 2 (가)에서 서준이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친구의 사례를 찾아서 진로 발표회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 3 상대방이 대답하기 곤란해 할 질문을 하는 것은 원활한 면담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과 같이 상대방의 대답에 적절하게 맞장구를 치므로써 상대방이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 5 ①은 (사)에서, ②는 (마)에서, ④는 (바)에서, ⑤는 (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6 서준이는 다현이와의 면담 과정에서 자기의 경험을 들려주고 있지는 않다.

**내용** 한눈에 보기

p.151

정보	목적	상황	목적	순서
구체적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52~153

- 01 ⑤ 02 ③ 03 ⑤ 04 상대방이 좀 더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이다. 05 ①, ⑤ 06 ③ 07 ⑤ 08 ㉠, 다현이가 질문하기 전에 ㉡에 대한 대답을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 01 서준이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친구를 소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한다. 이러한 면담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전 세계에 태권도를 알리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현이가 면담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다.
- 02 ③은 태권도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의 면담에서 하기에 적절한 질문이다.

- 03 준비된 질문 순서에 따르면 태권도를 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지 물을 차례였으나, 다현이가 외국인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에 관해 먼저 언급했기 때문에 면담의 실제 진행 상황을 고려해 질문의 순서를 바꾸었다.
- 04 ㉠은 다현이의 느낌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고 맞장구를 친 것으로 다현이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면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05 면담 질문을 마련할 때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친구를 소개하려는 면담 목적에 어울리는 질문인지,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다현이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질문인지 고려해야 한다. ②, ③은 태권도를 소개하기 위한 면담에 어울리는 질문이고, ④는 태권도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면담에 어울리는 질문이다.
- 06 다현이는 중학생이 되어 처음 참가한 태권도 전국 대회에서 개인전 준우승을 차지했음을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②, ④는 (라)에서, ⑤는 (가), (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7 이 면담에서 서준이는 다현이와 생각이 다른 지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 이 면담의 목적은 설득이 아니라 정보 수집이다.
- 08 면담의 흐름상 ㉡은 ㉢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데, 다현이가 ㉡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에 대한 답이 될 만한 내용을 먼저 말해 주었기 때문에 서준이가 ㉡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02 배려하며 말하기

핵심 체크 | p.154 |

- 1 정신적 2 X 3 X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54

- 1 ③ 2 ⑤

- 1 어떤 대상을 비판하는 말은 그 자체로는 언어폭력은 아니다. 비판을 할 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언어폭력이 되지만,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면 언어폭력이 되지 않는다.
- 2 상대에게 정신적으로 상처가 될 만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언어폭력이다.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55~156

- 1 ② 2 ⑤ 3 ④ 4 ⑤ 5 약속 시각에 늦은 친구가 사과를 하며 늦은 이유를 설명했을 것이다.

- ②는 상대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담은 표현이므로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이다. 나머지는 모두 언어폭력의 사례에 해당한다.
- 언어폭력이 주는 피해는 신체적 폭력의 피해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로 상대를 칭찬하는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가), (나)에서 대화의 참가자들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폭력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은어나 전문어 등 상대방이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된 상황은 아니다.
- 약속 시각에 늦은 친구에게 화를 내기보다 친구를 배려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했다면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내용 한눈에 보기

p.156

차별      정신적      부정적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57

01 ②      02 ②      03 ③      04 정말 미안해. 서두르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와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 다음부터는 늦지 않게.

- ①은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추어 헐뜯는 말(헐담)이지 외모를 업신여겨 낮추는 말은 아니다.
- (나)에서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욕설이나 비속어도 언어폭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 <보기>는 엄마에게 예의를 지키면서 엄마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한 표현이다. 이와 달리 ③은 엄마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늦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거나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을 표현해야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다.

## 5 | 쓰기

### 01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 쓰기

핵심 체크 | p.160

1 ①      2 제목      3 공유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60

1 ㉠-㉡-㉢-㉣-㉤      2 ③

-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 쓰기의 과정은 ‘글감 정하기 - 내용 마련하기 - 개요 작성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 자신의 삶과 경험이 담긴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글쓴이와 독자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61~162

1 ②      2 ③      3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어려움.      4 ①      5 ⑧  
6 ③      7 ⑤

-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호응 등은 글을 쓴 뒤 고쳐쓰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은서는 작은 키 때문에 고민하다가 여름 방학 동안 키를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글로 쓰려고 한다.
- ①은 (나)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에는 매번 의자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에 반영되어 있다.
- (다)에서 ‘나’는 쌍둥이 언니처럼 자기도 키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국 키가 잘 자라지 않자 불안해하고 걱정했다.
- (라)를 통해 글쓴이가 키를 키우기 위해 ①~④의 방법을 실천하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키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비록 키는 조금밖에 자라지 못했지만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키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키가 훌쩍 자랐음을 (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준수는 은서의 글을 읽으면서 키가 작아서 속상해하던 자신을 돌아보며 겉으로 보이는 키를 키우는 것보다 마음의 키를 키우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다.

### 내용 한눈에 보기

p.163

내용      제목      공유      성찰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64

01 ⑤      02 ②, ③      03 ④      04 마음의 성장과 성숙

-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글로, 수필에 속한다.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쓸 때에는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 02 이 글의 글쓴이는 키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고, 겉으로 보이는 키보다 마음의 키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03 글쓴이는 언니와 자신을 비교하는 대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였다.
- 04 ㉠은 내면의 성숙, 마음의 성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02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

핵심 체크 | p.165

1 통일성 2 목적, 주제, 예상 독자 3 문장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65

1 ④ 2 ⑤

- 1 ① 통일성을 갖춘 글은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밀접하게 연관되는 글이다. ②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주제와 어울리는 내용이면 된다. ③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없어야 한다. ⑤ 글의 주제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글이다.
- 2 ⑤는 글의 개요를 작성하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고려할 점이다.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66~167

1 ③ 2 ③ 3 ④ 4 내용이나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5 ⑤  
6 ④ 7 ④ 8 물론, 된다

- 1 (가)에서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로봇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 2 로봇의 위험성에 관련된 자료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글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다.
- 3 인공 지능의 역사에 관련된 자료는 글쓴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소개하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이다.
- 4 글을 쓰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목적), 핵심적으로 전달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주제), 글을 읽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예상 독자)에 따라 글의 내용과 표현을 달리해야 한다.
- 5 초고 쓰기의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를 고려하고, 개요에 따라 통일성을 갖추어 쓰되, 초고 단계에서 완벽한 글을 쓰겠다는 부담감을 갖지 않아야 한다. 초고를 여러 번 고쳐 쓰는 과정을 통해 좋은 글을 완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6 소방 로봇과 관련된 자료는 ㉡, 반려동물 로봇과 관련 있는 자료는 ㉢, 노인 도우미 로봇과 관련 있는 자료는 ㉠,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로봇과 관련된 자료는 ㉠이다.
- 7 ㉣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주제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내용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 8 ‘물론 털이 있는 동물을 키우기 어려우면 열대어나 이구아나처럼 털이 없는 반려동물을 키워도 된다.’는 문장은 실제 반려동물에 훨씬 더 가까운 반려동물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문단의 중심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없어서 글의 통일성을 해친다.

### 내용 한눈에 보기

p.168

출처            개요            예상 독자            통일성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69

- 01 ④            02 ③            03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 01 ④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에 해당한다.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이미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초고를 써야 한다.
- 02 (다)의 중심 내용은 기존의 반려동물 로봇보다 실제에 가까운 반려동물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은 이러한 중심 내용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글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
- 03 글을 쓰기 전인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미 글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가 결정된다. 이 글의 글쓴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로봇들을 만들고 싶다는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 03 매체의 특성에 맞게 표현하기

핵심 체크 | p.170

1 기획 2 스토리보드 3 X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70

1 ⑤ 2 ④

- 1 카메라의 각도처럼 영상에 담길 장면들을 어떻게 촬영할 것 인지는 스토리보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 2 인터넷 매체는 글쓴이와 읽는 이가 대화나 댓글, 답장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1 ③ 2 ⑤ 3 ③ 4 ⑤ 5 ⑤ 6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 7 ①, ⑤ 8 ④ 9 ④

- 1 촬영을 하기 전에 기획안과 스토리보드를 충실히 작성하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2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화에 참여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는 '온라인 대화'이다.
- 3 ①은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 나타나는 효과이다. ②와 ④는 카메라의 각도와 관련 있는 효과이다. ⑤는 카메라가 대상의 머리부터 그 위쪽이 나오도록 촬영할 때 나타나는 효과이다.
- 4 모두의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편집과 촬영, 음향 등의 역할을 적절히 나누어 맡았다.
- 5 장면 1의 숏 1에서는 '오늘도 행복하셨나요?'라는 자막에 맞추어 타자 소리가 진행되도록 효과음을 삽입하였다. ① 장면 2의 숏 1 ② 자막이라는 시각적 요소와 효과음이라는 청각적 요소를 모두 사용하였다. ③, ④ 장면 2의 숏 2
- 6 '기획 의도'에서 "오늘도 행복하셨나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친구들의 행복한 일상을 포착해서 보여 줌으로써 행복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주제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7 (가)는 온라인 대화, (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방식을 보여 준다. ② 동시에 여러 사람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의 분량이 제한된다. ④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8 '고기만두'는 상대방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등 인터넷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고 있다.
- 9 카메라의 각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은 촬영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 10 기획안에는 기획 의도와 제작 전반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고, 스토리보드에는 영상 언어를 활용한 장면 구성이 정리되어 있어서 영상 제작의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획안      효과음      실시간      댓글

01 ②      02 ③      03 ③      04 경쾌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05 ③      06 ④      07 ④

08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았다. / 근거 없는 비난으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 01 (가)의 기획안에는 영상을 통해 전달하려는 바를 기획 의도로 분명하게 정리해 놓았다. ②와 같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기획 단계에서 기획 의도를 명확하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기획 의도가 바뀔 때마다 촬영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02 인물과 카메라의 거리를 멀게 하면 인물과 주변 상황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 인물의 작은 특징까지 섬세하게 보여 주려면 인물과 카메라의 거리를 가깝게 해야 한다.
- 03 영상 언어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은 자막이므로 시각적 요소에 해당하고, 배경 음악, 대사, 효과음 등은 모두 청각적 요소에 해당한다.
- 04 장면 2의 숏 1에서는 세 명의 학생들이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상의 모습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포착해서 보여 주려는 기획 의도에 맞게 활기찬 느낌의 음악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학생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간식을 먹는 장면과 활기찬 느낌의 음악이 어우러지면 경쾌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 05 (가)는 온라인 대화, (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이다. 온라인 대화는 용량이 크지 않은 사진이나 영상, 음성 파일 등을 쉽고 빠르게 다른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용량 파일을 주고받아야 할 경우에는 전자 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06 자막과 배경 음악, 효과음 등을 삽입하는 일은 편집 단계에서 해야 할 일에 해당한다.
- 07 영상을 보고 행복에 대해 말한 사람은 '늘봄'인데, 행복이 일상 속에 있으므로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봐야겠다는 감상평을 남겼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 08 '고기만두'는 반말을 사용하는 등 인터넷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지안이네 모두가 만든 영상물을 근거 없이 비난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

# memo

